

해외공장 연쇄 섀다운 車·가전업계 ‘초비상’

현대기아차, 중국 외 ‘울스톱’
삼성, 전세계 25% 가동 중단
LG전자, 6개 공장 일시 폐쇄
배터리·철강업계 공장도 불꺼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이 연이어 가동을 멈추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장 일시 폐쇄나 이동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섀다운(일시 가동 중단) 기간도 연장되고 있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해외 공장이 가동을 이미 멈췄거나 멈출 예정이다. 현대차는 미국·체코·브라질·인도·러시아 공장이, 기아차는 미국·인도·슬로바키아 공장이 생산을 중단했다.

마지막까지 생산을 이어가던 기아차 멕시코 공장도 자동차 수요 감소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6일부터 1주일간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이로써 기아차의 5개 해외 생산기지 중 80%가 문을 닫게 됐다. 가동을 멈추거나 멈출 예정인 공장이 지난해 각사의 전체 해외 생산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현대차가 74%, 기아차도 77%에 달한다.

전자업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 37개의 생산거점이 있는데, 현재 25%가 가동을 중단했다. 지난해 23일에는 인도 노이나주 스마트폰 공장도 체나이 가전 공장을 주 정부 방침에 따라 섀다운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브라질 캄피나스 공장도 지난해 30일부터 멈췄고, 스마트폰과 TV를 생산하는 마나우

스 공장 역시 12일까지로 중단 기간을 연장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 공장을 6일부터 19일까지 멈춰 세울 예정이고,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러시아도 생산을 중단했다.

LG전자도 41개 생산거점 중 15%인 6개 공장을 일시 폐쇄했다. 지난해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인도 노이다 가전 공장 과 푸네 TV 공장이 문을 닫고, 미국에서는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과 디트로이트주 자동차 부품 공장이 각각 지난해 30일, 20일부터 가동을 멈췄다. 브라질 마나우스와 러시아 루자 소재 공장도 지난해 말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배터리 업계의 공장도 멈춰 섰다. 미국 미시간주 3주간의 자택 대기 명령을 내리면서 LG화학의 배터리 셀 공장, 삼성 SDI의 배터리 팩 공장이 지난해 25일부터 가동을 멈췄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앨라배마와 체코에 있는 첨단소재 부문 공장의 가동률을 낮췄다. 두 공장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데, 완성차 공장이 문을 닫자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포스코의 경우 이탈리아 북동부에 있는 가공센터 포스코-ITPC의 가동을 지난해 26일부터 멈춘 상태다. 이 공장은 연간 4만 톤에 달하는 스테인리스를 가공하는 곳이다. 현대제철은 9개국에 있는 가공센터 중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과 체코, 슬로바키아 센터는 부분 가동 중이고 러시아와 터키, 브라질, 멕시코, 인도는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유창욱 기자 woogj@
▶ ‘코로나19’ 관련 2·3·4·5·8·9·10·18면



선거전 돌입...누구를 찍을까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 시작했다. 유권자는 진영 논리를 떠나 공약을 꼼꼼히 살펴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은 10~11일이다. 서울지역 출마자의 프로필 사진을 국회와 모자이크 합성했다. ▶관련기사 6면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커머스 ‘집콕族’ 타고 날다

티몬, 월간 영업익 1.6억 첫 흑자
적자 불명예에 털고 내년 IPO 추진
11번가·쿠팡 등도 매출 증가 기대

치킨게임으로 치달던 이커머스 업계에 흑자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이커머스 업계의 흑자 전환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티몬은 3월 실적을 결산한 결과 1억 6000만 원의 월간 흑자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월 단위로 영업이익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쿠팡과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로 이커머스 시장에 발을 디딘 국내 기업 중 최초다. 10년째 적자인 업계 상황에서 유일한 성과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특히 티몬은 3월 흑자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향후 분기연 단위로 지속가능하도록 설계된 건전한 실적 개선이라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티몬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급격한 손실 개선을 이뤄냈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 2·3분기 흑자를 넘어 연간 흑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년 상장을 목표로 IPO 준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와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증가는 전년 대비 34.3% 치솟으며 통계작성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쇼핑 매출 비중은 49%를 차지, 오프라인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3월에는 사상 최초로 온라인 매출 비중이 오프라인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이커머스의 대표 흑자 기업은 최근

매각설이 불거진 이베이코리아로, 2018년까지 1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며 영업이익도 무난히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11번가도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인터파크도 2011년부터 9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장수 흑자 기업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8%나 성장했다.

조 단위 적자에 시달리는 쿠팡은 당장 흑자 전환은 불가능하지만 최근 2년간 총 4차례에 걸쳐 1조4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은 나스닥 상장을 염두에 둔 재무구조 개선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최근 핀테크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 역시 쿠팡페이백을 통해 추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ں 시각도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증권사가 꼽은 미래 먹거리는

디지털 혁신·해외투자·맞춤형 자산관리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들이 먹거리 찾기에 사활을 걸었다. 사업보고서에는 ‘생존’, ‘변화’, ‘도약’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현재의 위기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증권사 상위 10개사(자기자본 기준)는 올해 주요 사업 목표로 △글로벌 확장 △디지털 혁신 △자산관리 서비스를 꼽았다. 이들은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업황 불황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파생시장 위축이 더해지면서 활로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다수의 증권사는 해외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은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해외상품 소싱과 신시장 영업기간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해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동남아 신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 등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

해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KB증권도 “해외 자회사들에 대한 자본규모 확대로 영업력을 강화해 아시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혁신도 중점 사업 중 하나다. 일부 기업의 경우 핀테크를 활용한 신기술 금융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젊은 고객을 확보하고 비용 절감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경쟁사와 차별화된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반 자산관리 영업을 활성화하겠다”, 삼성증권은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해 성장성이 예상되는 대중 부유층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고객 자산가에게 개인연금이나 신탁, 랩어카운트 등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 부문도 수익을 가르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 자산가 전용 센터(오블리제클럽, 프라이머블루)를 오픈하거나 자산관리 전담 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나노입자 ‘3차원 구조’ 재현 기술 세계 첫 개발

‘삼성 지원’ 박정원 서울대 교수팀
3일자 ‘사이언스’ 표지 논문 게재
QD디스플레이·신약개발 활용 기대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이 지원하는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나노 입자를 3차원 구조로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디스플레이, 연료전지,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 연구단 박정원(사진) 연구위원(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나노 입자의 3차원 구조를 0.02나노미터(nm·10억분의 1m)의 정밀도로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연구는 호주 모나시대학교,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3일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나노 입자는 수십에서 수백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1나노미터 이하의 물질이다. 지금까지는 나노 입자의 크기나 전체적 형상 등 2차원 정보만 관찰 가능할 뿐, 나노 입자의 원자 배열 등 3차원 정보 확인은 불가능했다. 연구팀은 나노 입자를 연속 촬영할 수 있는 특수 용기인 ‘액체 셀(Liquid Cell)’과 3차원 데이터 구성을 위한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 이를 이용해 액체 셀에 나노 입자를 담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초당 400장의 이미지를 촬영해 얻은 서로 다른 2차원 평면 이미지를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3차원 데이터로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불완전한 QD(퀀텀닷) 나노를 구별, 순도가 좋은 QD 나노 입자를 탄생시켜 QD 디스플레이의 색상과 밝기 개선에 적용할 수 있다. 또 단백질 구조 분석을 통한 신약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

다. 예컨대, 단백질에 QD 물질을 넣어 암세포에 달라붙게 하면, 레이저 치료 등에서 정확하게 암세포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이 밖에 석유화학 산업과 연료전지 등에서 사용되는 촉매의 성능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원 교수는 “나노 입자의 3차원 구조 분석 기술은 나노 입자뿐 아니라 단백질과 같은 생체 분자에도 적용할 수 있어 새로운 융합 연구에도 활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2018년 11월 삼성미래육성사업 과제로 선정돼 연구 지원을 받고 있으며,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아 수행됐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국가 미래 과학기술 연구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10년간 1조5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561개 과제에 7189억 원의 연구비를 집행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사회적 거리두기 · 함께 나누기
· 서로 배려하기 · 바이러스 바로 알기

GS25

‘매출 감소’ 점주 생활 안정 위해
정산금 50% 최대 12일 선지급

CU

가맹점주상생협력펀드 조성
대출 금리 2%P 인하 혜택

세븐일레븐

임직원 기부금 9200만원 조성
전국 점포에 마스크 10만장 전달

“점포 방역·상품 폐기 비용 지원 등 진정성 있는 상생” 편의점 본사-점주, 위기 극복 ‘아름다운 동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잇따라 상생 경영에 나서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회사와 임직원 1대1 매칭그랜트 방식을 통해 92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하고, 마스크 10만 장을 구입해 전국 가맹점에 전달한다고 2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넘게 장기화되면서 경영주와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전달된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안전한 매장 운영을 위해 경영주와 메이트가 근무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2월 말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을 위한 상생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난달엔 세븐일레븐 퇴직 직원 모임인 ‘세사모(세븐일레븐을 사랑하는 모임)’와 현직 임원진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대구·경북지역 가맹점 520여 곳에 마스크 2600여 개를 지원했다.

세븐일레븐 경영주협의회도 지난달 대구지역 경영주를 응원하고 돕기 위해 임직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상생경영이 잇따르고 있다. GS25 본사 직원이 한 점주에게 긴급지원한 위생용품 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GS25

원과 함께 마스크 4700여 개를 마련해 대구지역 세븐일레븐 전점에 전달한 바 있다.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에는 방역 비용 본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휴점한 점포에 대해 푸드 상품을 100% 폐기 지원하고 있다.

함태영 세븐일레븐 커뮤니케이션부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점포 운영을 위

해 힘써 주시는 경영주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진정성 있는 상생 경영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GS25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가맹점주들을 위해 매달 2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경영주를 대상으로 100여 개 주요 품목에 대해 신선식품 폐기지원 금액을 30%

늘려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GS25 영업팀은 서초구청 통해 구호식품 200만 원어치를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생활 안정을 위해 급하게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영주의 정산금 50%를 기존 수령일보다 최대 12일 선지급하는 경영주 정산대금 조기 지급 방안도 마련했다. 점포 휴점으로 발생한 기본적인 손실 지원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매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휴점 점포에 대한 긴급 판촉 예산도 편성했고, 상생대출의 금리를 0.7%까지 우대하는 등 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CU(싸유)는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과 중소기업력을 위해 최근 15일간 6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서는 가맹점주 상생협력펀드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상생협력펀드를 통한 대출은 2%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

또한 확진자 방문으로 휴점하는 점포의 방역비용을 본사가 부담하고 휴업당일과 다음 날까지 판매되지 않은 상품 폐기 금액 역시 본사가 100% 지원한다. 남주현 기자 jooh@

‘혈액 공급 부족 해소’ 팔 걷은 유통업계

SPC, 헌혈증 140장 TK지역 기부... 맘스터치, 헌혈 독려 캠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혈액 공급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업계가 앞장서고 있다.

SPC그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 공급 부족 현상 해소를 돕기 위해 임직원들의 헌혈증을 기부한다고 2일 밝혔다.

SPC그룹은 서울양재동 본사에서 헌혈캠페인(사진)을 열고 마련한 140장의 헌혈증을 대한적십자사와 대구지역 의료기관 등

혈액 수급이 어려운 의료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SPC그룹은 이 밖에도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3월 한 달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에 생수·빵 총 60만 개를 전달했으며,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총 4000여 개, 빵 1만4000여 개를 지원했다.

남양유업도 최근 환아들을 돕기 위해 세

브란스 어린이병원에 방문해 367장의 헌혈증을 기부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헌혈자가 급감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양유업 임직원 210명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헌혈에 나섰다. 임직원들은 업무 시간을 할애해 인근 헌혈센터에서 긴급 헌혈을 실시했고, 자신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헌혈증을 기부하고 싶다



는 임직원들도 동참했다.

한세에스24홀딩스는 지난달 18일 ‘헌혈로 한세의 사랑을’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헌혈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뉴스를 접한 임직원들의 아이

디어로 이뤄졌다.

맘스터치는 자사 후원으로 제작되는 유튜브 채널 ‘터치플레이’ 소속 선수들과 함께 혈액 공급난 해소를 위해 헌혈 독려 캠페인을 지난달 말 전개했다.

터치플레이는 축구, 농구 등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이색 승부를 벌이면서 승리할 경우 일정 금액을 적립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전달하는 재능기부형 나눔 프로그램이다.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도봉이통닭은 국민들이 헌혈에 동참하도록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헌혈증을 갖고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신메뉴를 30% 할인 판매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인사말씀

이번 고(故) 진봉(晉峰) 구자원(具滋元) 회장
상사(喪事)시에 조의를 베풀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애도(哀悼)의 뜻을 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의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020년 4월 3일
LIG 가족 일동 드림

가혹한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힘겨운 삶에 지친 이들을 위한 철학 처방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철학이란,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 속에만 있다”

쇼펜하우어, 헤르만 헤세, 조르주 퐁텐, 장 지크 루소, 비트겐슈타인...
역사 속 철학자와 문학자의 실면면 아니라 정신과 의사의 저자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엮어낸,
질병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 이야기

304쪽 | 14,000원

원유 싼고 떠도는 유조선... 돈 내고 기름 팔아야 할 판

‘마이너스 유가’ 부추긴 산유국 ‘치킨게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원유 수요가 급감했는데도 산유국들이 증산에 속도를 내면서 갈 곳 없는 ‘홀리스 원유’가 넘쳐나고 있다. 이에 유가가 마이너스(-)대로 떨어져 업자가 되레 돈을 주고 기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글로벌 원유 수용 능력에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이 머지 않았다. 국제유가가 18년 만의 최저치로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도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멈추지 않아서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8%(0.17달러) 내린 20.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19.90달러까지 떨어지며 20달러 선을 내주기도 했다. 올 1분기 WTI 가격은 66%나 빠졌다.

JBC는 “현재 전례 없는 공급 과잉에 육상 및 해상 모두 저장 공간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면서 “4월에 갈 곳이 없는 ‘홀리스 오일’이 하루 600만 배럴에 이르고, 5월이면 700만 배럴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도 “저장시설, 정제시설, 파이프라인, 터미널, 수송선 모두 저장 능력을 초과할 것”이라면서 “1998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전

유가 배럴당 20달러... 18년來 최저 글로벌 수요 급감에도 ‘증산 경쟁’ “저장할 곳도 없다” 재고 수용 한계 트럼프 “사우디-러, 소모전 멈춰라”

세계에 약 10억 배럴의 예비저장 능력이 있지만, 현재 공급 속도가 운송 네트워크를 추월해 상당 부분은 그곳에 도달조차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홀리스 오일’이 넘쳐나면서 원유 가격이 제로(0)를 넘어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유 저장 공간 부족으로 정유사들이 돈을 주고 원유를 팔아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미 원유 생산업체들이 생산 중단 및 시설 폐쇄 비용을 고려해 ‘제 살 깎아 먹기’ 운영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지난주 블룸버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산 원유는 최근 배럴당 마이너스(-)19센트에 거래됐다.

원유 시장에 대한 잦은 전망이 가득한데도 산유국들은 증산 경쟁에 여념이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량을 대폭 늘려 러시아와의 점유율 싸움을 지속할 방침이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랍코는 전날부터 전체 산유량을 사상 최대치인 하루 1230만 배럴로 끌어올렸다. 이는 2월 970만 배럴보다 27% 많은 규모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라스 알 카이르항에서 두 남성이 해상에서 떠 있는 유조선을 바라보고 있다. 산유국 간 점유율 싸움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원유 수요 급감으로 원유 시장은 현재 전례 없는 공급 과잉에 직면, 육상 및 해상 모두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담담/AFP연합뉴스

미국 원유 생산량도 역대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원유생산은 하루 평균 1300만 배럴로 집계됐다. 미국 경제가 ‘셧다운’ 되면서 휘발유 수요가 하루 880만 배럴에서 670만 배럴로 감소했음에도 생산을 줄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의 원유 재고는 지난해 약 1380만 배럴

었다. 45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국제유가 급락 후폭풍으로 미 세일업계의 줄도산이 예고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산업이 파괴됐다”며 “이는 러시아와 사우디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라면서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 지도자들과 이

야기를 나눴고 이들 두 나라가 수일 내로 유가 전쟁을 끝내는 데 합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진화 노력에도 글로벌 원유 수요 급감에다가 산유국들의 잇단 증산으로 수요·공급 모두 유가를 압박하면서 원유 시장은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교역 개선·경상수지 흑자는 ‘독’ 장기적으로 건설·조선 타격 ‘독’

국제유가가 60달러에서 20달러로 폭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등 저유가를 넘어 초저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가 하락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 경제에 축복으로 여겨졌다. 소비자로서는 자동차 기름값이 싸지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도 적어 지다 보니 그만큼 지갑에 여유가 생겨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기업으로서도 원자재와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어 생산 단가를 낮춰 제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또 원가 절감 비용을 투자에 활용, 경기 선순환을 유도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는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유가 하락의 원인이 공급이 너무 많아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경우다.

문제는 최근 유가 폭락이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가 복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으로 실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로 수요가 줄어 유가가 내리면서 실질구매력 상승에 따른 이익은 사라지고 오히려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기업이 저유가를 활용해 생산 단가를 줄여 값싼 제품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의미다.

수요측 요인으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성장률이 0.3%포인트(P) 오른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유가 10% 하락 시 성장률

이 0.3%P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산유국과 신흥국 경제가 저유가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연관 산업 피해도 적지 않다.

지난달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수출은 각각 9.0%, 5.9% 줄었다. 품목별 단가 하락률에서도 석유제품이 -22.7%로 가장 높았고 석유화학(-17.2%)이 뒤를 이었다. 이 두 부문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육박한다.

이와 함께 산유국 경기가 나빠지면 건설·플랜트 관련한 발주 취소가 이어지면서 국내 건설·조선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도 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유가 하락 자체만 두고보면 부정적이라 보긴 어렵지만, 그 원인이 세계 경제 부진에 있다는 점에서 국내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에는 유가 하락으로 수혜를 봤던 업종 역시 이번 초저유가 상황에서는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심각하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항공, 운수 등이 유가 하락의 수혜 업종이지만 코로나19로 아예 운항 자체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유가 하락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이 고스란히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수혜 업종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매일 하는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현대인의 문제적인 식습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미엄 녹차 정제



고열량, 고탄수화물, 고당류 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콜레스테롤 관리
메타그린 골드의 녹차추출물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으로부터 항산화, 뼈 건강 관리
비타민C, 녹차추출물이 함유되어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비타민D가 함유되어 뼈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타그린 골드만의 프리미엄 정제 기술 적용
아모레퍼시픽만의 녹차 정제 기술을 높여, 정제를 만들고 코팅하는데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0가지(이산화티타늄,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를 함유하지 않았으며, 장용성 코팅 기술로 더욱 속 편하고 부드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 건강기능식품 중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염물질 잔류 최소화 관리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투표소 방역 총력”... 발열체크 후 비닐장갑 끼고 투표

정부, 투표소 내 '거리두기' 당부... 기표 용구 수시 소독
선거 당일 이상증상 있는 유권자,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자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불법선거운동 단속 현황에 따르면, 30일 기준으로 총 706명, 경찰청에 따르면 총 568명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거짓말선거가 주를 이뤘고 금품선거, 선거폭력 순이다.

강 장관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주재 우리 공관들의 재외 선거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했다”며 “재외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재외 공관과 동포사회가 협력하여 안전하게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외선거는 이날 1일부터 6일까지 총 90개 공관 96개 투표소에서 등록유권자 총 8만6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당초, 명부 등재자 총 17만1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총 51개국 86개 공관(등록 유권자 8만 5919명)의 선거사무 중단이 결정됐다.

국내 투표소의 경우 정부는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한다. 투표권자가 투표소 진입 시 발열체크를 하고,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손소독 후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를 실시한다. 기표 용구, 기표대, 본인확인기 등도 소독 티슈로 수시로 소독할 계획이다.

선거 당일 이상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진 장관은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

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등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의 선거관련행위 및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벌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10일부터 11일까지의 사전투표 기간 또는 15일 선거일에 국민들의 참여권 행사를 당부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 등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오늘부터 일본 못 간다

일본 정부가 3일부터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에 포함한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발권 카운터가 일본행 항공기를 타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개학, EBS 강의 활용해야”

입법처 “추가 비용·시간 안 들어... 사교육비 경감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개학’ 조치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대책만으로는 2020학년도 학사일정 운영과 학생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EBS 강의 활용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EBS 강의는 수능시험에 최대 80% 이내에서 연계됐고, 현직교사도 강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초·중·고교 학생과 교사의 이용 경험이 많고, 강의 콘텐츠의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생 안전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학습 공백을 막기 위해 학생 스스로 원격학습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원격수업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쉽지 않고, 교사·학교간 격차가 크며 EBS 강좌 등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을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EBS 강의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수업 활용에 추가 비용과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EBS 강의의) 큰 장점”이라며 “학업 공백을 메우려면 사교육에 의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교원에 대해서는 평가, 출석, 토론, 과제 등 기준을 정하고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울러 입법조사처는 △원격수업의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 미흡하다는 점 △원격수업 및 학사 일정 운영 추진체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어 해결 방안으로는 “원격수업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 필요하다”며 “원격교육 지원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코로나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한은 ‘한국판 양적완화’ 첫 입찰... RP 5.25조 매입

〈환매조건부채권〉

금리 0.78%에 응찰액 전액 낙찰... 시장 RP금리도 하락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첫 실시한 유동성 풀기가 무난했다는 평가다.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충분하다고 봤다.

2일 한은과 채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레포) 매입으로 시장에 풀 자금은 5조2500억 원이다. 무제한 매입을 표방한 만큼 응찰액(5조2500억 원) 전액을 낙찰시켰다.

입찰에 앞서 정해진 오늘 모집금리는

0.78%였다. 한은은 앞서 기준금리(0.75%)에 10bp 이내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해 매번 모집금리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이 무제한 RP매입을 시작하면서 시장RP금리도 하락세다. 1일물 RP금리는 전일 대비 7bp 하락한 0.73%에 출발했고, 현재 그 수준에서 거래 중이다. 한은은 오늘부터 3개월간 매주 한 번씩 RP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수의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한은은 시장이 필요한 만큼 매입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 참가자들도 은행채를 매수하고 RP 응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 결과는 무난했다. 시장 레포 금리도 내려가고 있어 우호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은 관계자도 “지난주 RP금리는 0.77%에서 0.78%로 형성됐었다. 91일물 임에도 불구하고 모집금리를 1일물 금리 그대로 한 것이니 전혀 비싸지 않은 것”이라며 “채안펀드(채권안정펀드)도 3조 원이다. 응찰액이 캐피탈풀 3조 원을 넘는 것을 보면 응찰액이 적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착한 가맹본부’ 정책자금 대출금리 최대 0.6%p 깎아준다

87개 프랜차이즈 수수료 면제 등 동참... 수은·산은 등 융자 혜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나선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대출 시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전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2일 발표했다.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은 가맹본부가 가맹수수료(로열티)·식자재 공급가 인하 및

면제, 현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으로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87개 가맹본부(가맹점 총 8만 4000개)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은 △전 가맹점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 이상 면제 △전 가맹점 필수품목의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전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 △화천방문 및 재난지역(대구·경북)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지원 △현금 지원 등

5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다.

다만 가맹점이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종 등은 제외다.

해당 가맹본부는 △수출입은행의 수출 및 해외사업 관련 대출금리 0.2%p 인하 △산산업은행의 재난구복 특별운영자금(힘내라 대한민국) 금리 0.6%p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금리 0.3%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 내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금리 0.6%p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료율 0.2%p 인하의 혜택을 받는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세계 확진자 90만명 돌파... 사망자 5만명 육박

각국 ‘국경 봉쇄’로 대응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90만 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에 자국민 입·출국을 통제하면서 국내에선 외국인 입국제한도 무의미하게 됐다.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도 이미 1월과 비교해 20배 이상 줄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89명 늘어난 997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169명으로 4명 추가됐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국외는 9시 기준)는 91만727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만5872명이 숨졌다. 국가별로 미국(21만3372명, 사망 4757명)과 이탈리아(11만574명, 사망 1만3155명)에 이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지인 중국(8만1554명, 사망 3312명)을 넘어섰다. 유럽에선 이탈리아를 포함해 독일(7만 7872명, 사망 920명), 프랑스(5만6989명, 사망 4032명), 영국(2만9474명, 사망 2352명), 스페인(10만2136명, 사망

9053명) 등 10개국에서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동에선 이란(4만 7593명, 사망 3036명)을 중심으로 최근 확진자가 급증세다.

코로나19 확산에 각국은 국경 봉쇄로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가입국 상당수는 비 EU 국가로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다 사망자가 나온 이탈리아는 관광 목적의 모든 외국인 입국을 막고 있다. 호주, 베트남, 홍콩 등은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 중이다.

각국이 외국인 입국을 막으면서 국가간 인구 이동도 사실상 멈춰 섰다. 한국의 경우 1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일평균 4만2581명에 달했으나, 최근 1주(3월 25~31일)간은 1989명으로 21.4배 줄었다.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면서 해외 여행도 줄어 내국인 입국도 최근 급감했다. 지난달 30일과 31일에는 내·외국인을 포함한 하루 입국자 수가 7000명을 밑돌았다.

우리 정부는 당분간 외국인에 대한 강화된 검역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제조업 체감경기, 금융위기 수준... 내수·수출 모두 '뚝'

2분기 BSI, 18P 떨어진 57
기업 71% "코로나 피해 입어"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22% ↓
"금융·세제 등 정책 지원 절실"



해를 입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1.3%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내수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70.3%)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30.1%) △중국산 부품·자재 조달 어려움(29.4%) △방역물품 부족(29.4%) △자금 경색(24.0%) △물류·통관 문제(14.5%)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올해 1분기 매출액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2%로 집계됐다. 또, 과거 경제 위기와 비교한 산업현장의 피해 정도에 대해 기업들은 '외환위기 때와 유사(41.4%)하거나 더 크다(35.6%)'는 응답이 '더 적다'(23.0%)는 답변보다 높았고, '금융위기 때와 유사(41.8%)하거나 더 크

다(41.4%)'는 응답이 '더 적다'(16.8%)라는 답변을 훨씬 웃돌았다.

수출과 내수기업의 체감경기전망은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2분기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63으로 전 분기보다 25p 하락했으며, 내수 부문은 56으로 15p 떨어졌다.

지역별 체감경기는 특히, 코로나19로 2월 관광객이 40% 넘게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제주(43)'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높은 '충남(43)', '대구(50)', '경북(51)'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감염병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에 밀집한 '섬유·의류(45)', '자동차·부품(51)', '기계(59)' 부문을 중심으로 모든 업종의 체감경기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금융·세제 지원(72%) △공정거래, 세무조사 등 기업 조사 유예(35.3%) △조업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31.4%) △내수·관광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28.5%) △서비스·신산업 관련 규제개혁(15.7%) 등을 차례로 답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5년 무사고 댄 개인택시 양수 가능

'법인택시 6년 경력' 규정 없애
플랫폼 가맹사업 기준도 완화

앞으로 서울에서 택시 500대라도 플랫폼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최소 4000대는 있어야 한다. 또 법인택시 경력 6년 없이 무사고 5년이면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고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도교통부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

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 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서울 같은 특·광역시에는 총택시 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에서 1% 또는 500대 이상이면 가맹사업이 가능하다.

이는 가맹사업 제도가 시작된 2009년 이후 가장 큰 변화다. 그간 과도한 면허 기준으로 가맹사업자가 카카오, KST, DGT 3곳에 머무는 등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 확장이 더욱 쉬워지고 새사업자(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KST '마카롱 택시'가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식재료 소비가 증가해 가공식품과 축산물 가격이 올랐다. 2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축산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올랐고, 가공식품도 1.7%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신태현 기자 holjjak@

'집콕'이 끌어올린 물가 3개월 연속 1%대 유지

채소류 16.5%·축산물 6.7% ↑
근원물가 상승률 IMF 후 최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째 1%대를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에도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라서다.

통계청은 2일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1.0% 상승했다고 밝혔다. 근원물가에 해당하는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와 식품·에너지 제외지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가 각각 0.7%, 0.4% 상승에 그쳤으나, 생활물가지수는 1.8%, 신선식품지수는 3.8% 올랐다. 자가주거비 포함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0.8%였다.

OECD 기준 근원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말이었던 1999년 12월(0.1%) 이후 최저치다.

품목 성질별로 상품은 1.6% 올랐으나, 서비스는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상품에선 농·축·수산물이 3.2% 상승했다. 농산물 중 채소류가 기저효과로 16.5% 급등하고 축산물은 6.7%, 수산물은 7.3%

올랐다. 공업제품에서 가공식품이 1.7% 상승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비패턴 변화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식재료 소비가 증가해 가공식품 쪽이 올랐다"며 "축산물 쪽도 가정 내 소비로 돼지고기, 닭갈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석유류는 6.6% 상승했으나 지난해 유류세 인하를 고려하면 사실상 하락이다.

서비스는 공공서비스(-0.6%), 개인서비스(1.1%) 상승률이 모두 둔화했다. 개인 서비스 중에선 외식 물가 상승률이 0.9%에 그쳤다. 공공서비스는 정책적 영향, 개인 서비스는 수요 영향이 크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에선 배추(96.9%), 돼지고기(9.9%), 양파(70.6%), 닭갈(20.3%) 등이 크게 올랐다.

전반적으로 3월 물가 상승률이 코로나19 확산과 정책적 영향으로 0%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며 가까스로 1%대를 유지했다. 두 품목은 물가 상승률을 0.36% 포인트(P)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종료로 석유류 가격이 오른 것도 물가 상승률에 플러스 요인이 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교복 입은 유권자들 “선거요?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만 18세 전국 14만명 첫 투표
코로나 여파로 선거교육 차질
“관심은 있지만 너무 어렵다”
체계적인 주권자 교육 필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만 18세 유권자 홍보에 활용할 포스터 및 소품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시스

“투표는 할 거예요. 우리 BTS(방탄소년단) 오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찍으려고요.” (박서현, 18세)

“정치 어려워요. 저는 이과인데 중간고사에 모의고사도 있어서 따로 선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소운, 18세)

4·15 총선에서 처음으로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인 전국 14만 명의 고등학교 3학년이 ‘생애 첫 투표’를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투데이가 2일 만난 고3 유권자 대부분은 선거의 중요성이 피부로 와닿지 않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차일피일 연기되다 보니 선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목동 학원가에서 마주한 고3 서영인 양은 “제 주변엔 딱히 정치에 관심 있는 애들을 보지 못했어요. 수능 준비하느라”라며 “고3부터 투표한다는 얘기를 들긴 들었는데 학교에서 자세히 듣기보단 페이스북 같은 데서 봤어요”라고 말했다.

서 양 친구인 박서현 양은 “공약이란 단어 자체가 생소한데”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음표를 머리 위로 그렸다. ‘공약은 국회의원이 어떤 정책에 대해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라고 하자 박 양은 “아! 그러면 K-POP(케이팝) 관련한 공약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잘됐으면 좋겠어요”라며 웃었다.

함께 있던 이소운 양은 “TV 뉴스에서 선거가 국회의원 뽑는 것까지 하는데 그 이상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다”며 “1학년 때 배우긴 했는데 개념도 어렵고 비례정당 어쩌고 하는 것도 어렵다”며 미간을 찌푸렸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고3 유권자들이

선거에 아주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 국제학교 재학 중인 김모(19) 군은 “이번에 투표장에 꼭 가겠다”면서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 신중한 마음으로 후보를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경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시장경제 추구 인물을 따져보려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조모(19) 양은 “역사상 첫 청소년 투표 세대라고 하니 설렌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랏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뜻 깊다”면서 “물론 어른들이 우리 투표 참여를 걱정하는 시선도 알고 있지만 어른들은 투표 경력이 많아 학습된 거다. 우리도 인터넷으로 직접 후보자와 공약을 볼 수 있고, 부모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고 하기도 한다”고 당차게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선거 관련 주권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 홍문표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대체한 선거교육은 학생들이 처음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교육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 관련 주권자 교육은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갖고 현장에서 직접 이뤄져야 한다. 또 학교가 정치화되지 않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도 함께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청년, 정치를 말하다

“정치 연륜은 나이 아닌 경험 청년들에게 출마 기회 줘야”

이준석 통합당 노원병 후보

“공도 받아야 쳐 낼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출마 기회를 줘야 정치 경험도 쌓죠.”

이준석(사진) 미래통합당 노원병 후보는 2일 서울 노원구 선거사무소에서 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연륜은 ‘나이’가 아닌 ‘선거 경험’이라며 청년들의 정치 도전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1985년생만 35세의 청년 정치인이다. 그는 “정치”는 개인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다양한 경로 중 가장 파급력이 큰 방법”이라고 말한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에서 벤처 경험도 쌓고, 교육 봉사도 했지만 모든 방법의 끝엔 항상 ‘정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가 ‘박근혜 키즈’로 정치 입문을 결심한 배경 역시 큰 범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는 청년 정책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 후보는 “청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세대를 특화하지 않는다”면서 청년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관념을 지적했다.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책이 쏟아지는데 이는 다른 세대와 ‘칸막이’가 생기는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년 일자리 정책 역시 ‘칸막이’를 만든 예시라고 짚었다. 그는 “경험이 많은 50대가 회사를 경영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20대 청년이 일을 배우는 방식이 일반적인 기업 문화다. 그런데 ‘청년 사업가’라는 이름으로 지원책이 쏟아지지만,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경제 자체가 살아나고, 청년의 경제 참여 기회도 늘어나야 선순환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서울 노원병에서 세 번째 출마를 결심한 그는 그동안 대중과 쌓아온 소통력을 바탕으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상계동 지역 출신으로서 노원구의 교통 문제와 주거 문제 등 현실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임종석(오른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광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양정철·임종석〉

고민정 지원사격 ‘文의 남자들’ 총출동 오세훈 “캥거루 대신 지역일꾼을” 공세

총선 현장

광진을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할 것.”(양정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연구원)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 어쩌면 숨겨져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고민정.”(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낙연이 후원회장을 맡고 오늘 아침도 임종석이 날 도와준다”고 한다. 제 눈에는 고민정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엄마 뺨속에서 나오지 못한 뺨속에서 얼굴만 빼꼼히 내놓은 아기 캥거루 정치인이다.”(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접전지 서울 광진을 자양사거리에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출정식이 각각 진행됐

다. 2시간 차를 두고 파란 물결과 핑크 물결이 교차해 열린 분위기를 냈다. 먼저, 현장에는 고 후보의 지원 사격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1기 청와대 참모진 인연의 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 민주연구원장이 총출동했다. 오전 7시 30분께 유세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임 전 실장은 “3년이 넘는 시간과 선거 기간 저는 고민정 후보를 보면서 감탄한 건 본인 스스로가 서민의 삶을 살아오면서 서민의 살림살이에 대한 공감 능력과 생활을 이해하고 아픔을 느낄 줄 아는 그 좋은 바탕”이라고 치켜세웠다. 콩나물국밥을 먹으며 떠난 임 전 실장에 뒤이어 양 원장은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통해 전면에 나서며 ‘원팀’ 구성을 알렸다. 양 원장은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고민정 후보 당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고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광진에는 5선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던 ‘민주당계 텃밭’이다. 여기에 오세훈 후보는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대표에 패배한 이후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1년 이상 지역구 텃밭 다지기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는 주 3회 길거리에 파라솔을 펴고 직접 당원을 모집하는 등 발걸음이 나선 결과 400명이었던 진성당원이 최근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가 쓰고 나온 마스크엔 ‘광진 20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적혀 있었다. 지역일꾼을 자처해온 그는 출정식에서 고 후보를 겨냥해 “믿을 것이라고는 청와대에서 대변인으로 일한 것이 공직 경험의 전부”라며 “갑자기 나타나 오랫동안 광진의 미래를 고민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후보에게 현혹돼 기회를 준다면 알토란 같이 마려운 광진의 비전이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이주혜 기자 winjh@

기재부-국토부 경제관료 맞대결

총선 현장

이천

도농복합도시, 정치 성향 갈려
원도심쪽 시내는 ‘현역’ 송석준
SK하이닉스 인근 김용진 강세



김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송석준 미래통합당 후보

4·15 총선을 약 2주 앞둔 1일, 경기도 이천시 중심가의 풍경은 전국을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한풀 꺾인 모습이었다. 일명 ‘중앙통’으로 불리는 이천의 중심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제법 보였다. 공원 인근 식당 주인은 “지난주만 해도 텅텅 비었는데, 이제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것 같다”며 “지난주에 선거했으면 야당이 쉽게 이겼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은 중앙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가 맞붙는다는 점에서 주목이 쏠리는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김용진 후보가, 미래통합당에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 출신 현역의원인 송석준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김 후보는 행정고시 30회, 송 후보는 행정고시 34회다. 재경직 경제관료로서는 선후배사이다.

이천은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다.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과 농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치적 성향이 극명한 곳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려운 곳인데, 동시에 해볼 만한 곳이에요. 이번에도 도무지 누가 될지 모르겠어.” 중리동에서 만난 50대 남성은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역대 선거를 봐도 특정 정파에 대한 뚜렷한 지지 성향을 읽어내기 어렵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송석준 새누리당 후보가 50.99%의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이듬해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6.39%를 득표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27.47%)를 8.92%P(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가장 최근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2.16%를 득표했다. 민주당 지지세가 점차 높아지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지만, 이번 총선은 코로나 사태 여파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원도심인지 구도심인지에 따라라도 시민들의 정치 성향이 가르는 편이다. 택시 기사 장현모(62·남) 씨는 “원도심 쪽 시내에서 뵈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반면 SK하이닉스가 있는 부밭읍이나 대월면 일대에 내리는 분들은 대통령이나 정부를 좋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 주거 희망, 우리가 선물합니다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중소기업 취업청년 가구의 전세안심대출보증은 최대100%) / 단, 일반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최대70%

중소기업 취업청년가구	신혼가구	2재녀 이상가구	일반가구
최대 1억원 연 1.2% 금리	최대 2억원 (수도권 기준) 최저 연 1.0%~2.1% 금리	최대 2억 2천만원 (수도권 기준) 최저 연 1.0%~2.4% 금리	최대 1억 2천만원 (수도권 기준) 최저 연 1.0%~2.9% 금리

2020 새봄맞이 버팀목전세대출

경품 EVENT

이벤트 기간 : 2020.03.02(월) ~ 05.29(금)

- 참여방법 : 기간 중 버팀목전세대출 실행고객 (자동응모)
- 경품 : 삼성TV 65인치 (1명) / 삼성 에어드레서 (3명) / 애플워치5 (5명) / 휴스툼 무선 물걸레청소기 (11명)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000명)
- 당첨자발표 : 6월 중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지

▶ 상기내용은 2020. 3. 1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정책, 기금 운용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이거나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 및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기간 중 대출받고 2020년 5월 29일까지 대출계좌 유지 고객에 한하며 마케팅 미동의 및 SMS 수신 거절시 응모에서 제외됩니다. ▶ 경품은 우리은행에 등록된 고객님의 자택주소지 및 휴대폰 번호로 배송되며, 연락처 정보 오류 등으로 반송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등록된 고객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품 당첨 고객에 한해 고객정보가 업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경품 발송 이후 고객정보는 파기됩니다. ▶ 게재면적 제한으로 상기상품의 필요 공지사항을 전부 표시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 1599-0800, 1599-5000, 1588-5000
▶ 우리은행은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대출을 조건으로 금전 및 압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0.03.13 준법감시인-0599 심의필 (유효기간 : 2021.3.31)

매주 수백만씩 늘어나는 실업자... 美 '공포의 금요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수 발표 이동제한·의무휴업 조치 등에 실직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이번주 감원 본격화 '초긴장'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르면서 '불금'이었던 금요일이 '공포의 날'로 얼룩지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매주 목요일에 전주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발표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른 이동제한과 의무휴업 등의 조치로 실직자가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매주 그 수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은 크게 요동친다.

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2~28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최고치를 또 갱신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이번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450만 건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이보다 훨씬 많은 550만 건을 제시했다.

지난주 나온 3월 셋째 주(15~21일)에는 사상 최대인 328만3000명이 실업수당 신청에 가세했다. 이는 오일 쇼크 때인 1982년 세운 종전 최고치(69만5000건)의 4.7배에 달하는 규모이자, 3월 둘째 주의 28만여 건 대비 거의 1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NYT는 에일다 경제학자 폴 골드스미스-핑캄과 미네소타대 애런 소저너가 실업수당에 대한 구글 검색 건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6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예측을 웃도는 수치다.

검색 데이터는 실업수당 청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자료다. 지난주에도 '실업수당 신청(File for unemployment)'에 대한 검색은 전주 대비 62%나 급증했다.

특히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



지난달 23일 핵심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주민들이 3주간 집에 머물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뒤 미시간주에서는 '실업' 검색이 160% 정도 늘었다.

다만 이 같은 분석은 실업수당 신청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구직센터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와 꼭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해고된 노동자들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국가 자원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는 긴 대기 시간, 작동하지 않는 웹사이트, 통화 중인 전화 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노동부의 보고보다 실제 숫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이날 대기업들이 이번 주에만 수십만 명의 인원을 무급휴직 처리하면서, 2일 공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사상 최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주 겐과 백화점 체인 콜스, 메이시스에서만 22만7000명이 넘는 인원이 무급휴가 조치됐다.

켄 퍼킨스 리테일메트릭스컨설팅사 사장은 "현상황을 무엇에 빗대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공황이나 2차 세계대전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 컨설팅 회사인 쉐릴저그레이엔크 리스마스의 앤드루 쉐릴저 부사장은 "공식적인 해고 발표는 지난달 첫 주나 둘째 주 천천히 진행됐다"며 "그러다가 최근 며칠 사이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선 기자 hsbyun@



“식구가 다섯인데 천 마스크 2장?”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 옆에 앉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1일 열린 참의원 결산위원회 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며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천 마스크를 가구당 2장씩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역 마스크가 아닌 천 마스크라는 점과 가구당 겨우 2장씩 배부한다는 점에서 불만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 출처: 로이터 연합뉴스

美 “中, 코로나 피해 규모 의도적으로 은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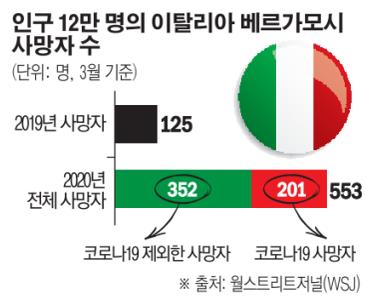
“감염 사례·사망자 수 왜곡으로 대응 어려워져...이탈리아·북한 등도 부정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을 비롯해 사태가 심각한 나라들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축소 공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여러 나라가 관련 통계를 왜곡하면서 전염병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진의 유효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비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를 축소해 확산 정도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주 백악관에 보고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전날 “중국 정부가 그동안 무증상 감염자를 통계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통계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약 3억 명인 미국만 해도 감염자 수가 20만 명이 넘는데, 하물며 인구가 13억 명인 중국 감염자가 8만 명 선에 그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경제 전문매체 차이신은 지난주 최근 봉쇄령이 해제된 코로나



19 진원지 우한시의 한커우 화장터에서 최소 5000개의 유골함이 운반됐다는 트럭 운전자의 증언을 게재하는 등 현지에서도 중국 정부 통계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중국 신규 확진자가 36명에 불과하다고 밝혀 코로나19 감염이 억제된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전날 난산성 중부 지아현이 60만 가까운 주민을 대상으로 통행금지 등 봉쇄령을 내려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데이터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건 중국만이 아니다. 블룸버그는 “한 명의 환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북한을

포함해 이란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을 공식 발표가 의심되는 국가로 꼽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기에 이탈리아도 보탤 수 있다. WSJ는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인구 12만 명인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에서는 지난해 3월 125명이 숨졌는데, 올해는 553명이 사망했다. 이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사망자는 352명에 달했다. 작년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사망했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각국 정부는 국민의 반발이나 동요를 우려해 수치 축소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것도 코로나19의 진정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블룸버그는 만일 공식 집계보다 감염자가 훨씬 많다면 치명률은 지금보다 덜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 전 세계적으로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 세일기업, 유가 하락에 첫 파산 정유업계, 트럼프에 '감산 SOS'

“배럴당 40~50달러는 돼야”

미국 세일업계에서 첫 파산보호 신청 업체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협조 감산 중단으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심각해진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탓이다. 정유업계 수장들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세일업체 화이팅페트롤리엄은 텍사스주 남부지역 연방파산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사우디와 러시아 간 추가 감산 합의 불발 여파로 국제유가가 18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나온 첫 파산 보호 신청이다.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화이팅은 총 부채 36억 달러(약 4조4431억 원), 자산 76억 달러로, 1일 채권단과 재편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지난주 6억5000만 달러(약 8000억4500만 원)를 대출받았음에도 이날 만기인 2억6200만 달러의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화이팅은 미국 중서부 노스다코타주 바켄 광구에 있는 세일업체로, 작년 석유 생산량은 하루 약 8만 배럴, 매출액은 15억 달러였다. 그러나 2월까지 배럴당 40~50달러에 거래되던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이 3월 들어 계속 떨어져 최근 배럴당 20달러대에 간신히 머물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

유가 급락으로 화이팅뿐만 아니라 대다수 미국 세일업체가 몰락 위기에 놓였다. 사우디와 러시아 사이에 가격 하한선을 지키기 위한 협조 감산 협상이 결렬, 이후 사우디가 대폭 증산을 표명해 유가가 급락하면서 생산 비용이 높은 미국 세일업체의 신규 사업이 잇따라 중단돼 자금난이 우려됐다. 세일업계는 유가가 배럴당 40~50달러는 돼야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석유업계 대표들을 만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엑손모빌과 셰브론, 옥시덴탈페트롤리엄 등 정유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영 기자 0jung2@

화상회의의 앱 'ZOOM' ... 불안한 대박

코로나로 뚝뚝만 보안 허점... 해커가 회의중 음란물 올리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전 세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화상회의 앱 '줌(Zoom)'이 일약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와 보안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사용자들과 정부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이동제한령을 내리면서 줌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줌은 현재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 영국에서는 2위에 각각 올랐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날 줌의 주가는 6.2% 급락했다. BBC는 과거 해커들이 화상회의에서 참석자들을 삭제하고 가짜 메

시지를 보내거나 공유한 화상을 가로채는 등 줌 앱에 보안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애플 맥 컴퓨터 사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강제로 전화를 거는 결함도 발견했다.

그러나 줌에 대한 구설수는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보스턴 지국은 지난달 30일 “해커들이 화상회의와 온라인 강의를 가로채 음란물 이미지를 올리거나 중요 메시지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했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했다”며 줌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시카고에서는 시의회와 주의회가 주최하려던 가상 기자회견이 해커가 올린 음란물 이미지로 인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레티사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줌 측에 인기가 높아진 이후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했는지 질의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줌 측은 “우리는 사용자 개인정보와 보안,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우리는 24시간 내내 전 세계 병원과 대학, 학교, 기타 사업체가 계속 서로 연결돼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뉴욕 검찰총장의 질의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퍼주기식 지원책' 부메랑 될라... 연체율 관리 비상

경고등 커진 시중銀 건전성

정부가 이달부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본격 가동하면서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대해 면책을 강조하면서 대출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은행들은 부실기업 육식 가르기에 비상이 걸렸다. 자칫 부실기업이 생겨 연체율이 높아지게 되면 추후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뇌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이투데이가 집계한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기업대출 연체율(기업기준)이 0.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0.3%)보다 1%포인트 높아난 수치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2월 평균 연체율은 0.55%로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다. 코로나19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시기를 3~4월로 봤을 때 연체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시기를 2월로 가정한다면 4

코로나 대출 문턱 낮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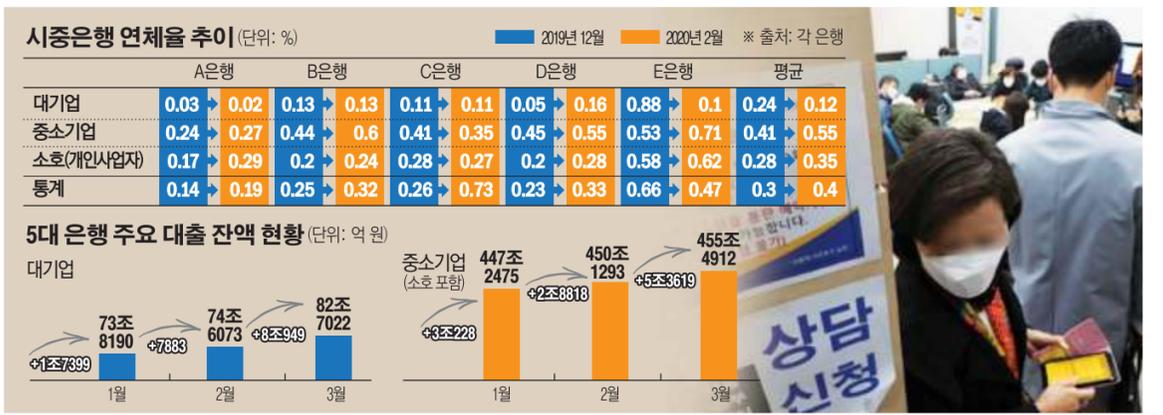
항공·여행업 등 한계상황 직면 무리한 지원 땀 은행 부실 위험

부실기업 육식 가려야

3월 원화대출 20兆, 증가폭 최대 실질 피해현황 파악 가능한 4월 자영업자 등 연체율 급증할 듯

월은 돼야 그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공·여행업 등 한계상황 직면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부실중후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은행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확산에 정부가 대책으로 여신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대출도 크게 늘고 있다. 이달부터는 소상공인 대출을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대출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



행의 3월 원화대출 잔액은 1170조7335억 원으로 전달보다 19조8688억 원 늘었다. 관련 통계를 구할 수 있는 2015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퍼주기식' 지원 대책이 향후 금융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기업들이 저금리를 앞세워 무리하게 운영될 경우, 은행 부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2월 중소기업 대출은 전년 대비 5조3619억 원 늘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대출 문턱을 낮춘 영향 때문이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년 대비 2조9732억 원 증가했다. 한 달 전 증가 규모(1조5525억 원)와 지난해 3월 증가규모(1조4351억 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매출 급감 등으로 자금 부족을 겪은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 저금리대출 첫날

은 아비규환이었다.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소상공인 대출은 고신용자(1~3등급)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다. 4등급 이상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 접수할 수 없다. 결국 영업점의 3분의 1 수준인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직접 찾아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시중은행까지 대출기관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에게 빠르게 대출해주겠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신한銀, 日 법인 ICT 전문 자회사 설립 SBJ은행 토미야 세이이치로(왼쪽 네 번째) 사장, SBJ DNX 히라오카(왼쪽 일곱 번째) 사장, SBJ은행 전필환(왼쪽 세 번째) 부사장, SBJ DNX 김계환(왼쪽 첫 번째) 부사장 및 관계자들이 1일 일본 도쿄 소재 SBJ본점에서 진행된 SBJ DNX 개업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디지털 영업모델 확대"

"코로나發 비대면 소비 확산 트렌드 변화 신속 대비해야"

로나가 바뀌 놓을 새로운 세상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보생명은 언택트 영업 강화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신창재(사진) 교보생명 회장이 영업 프로세스 전반의 디지털화를 주문했다. 신 회장은 2일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가 종식되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며 "디지털 트렌드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과거의 소비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트렌드는 더욱 가속화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며 "코

비롯해 원격 화상회의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무설계사(FP)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분급되는 신계약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앞당겨 지급하고 성과와 연계한 특별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신인 FP들을 위해 정착 수수료 지급 요건도 낮추기로 했다.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 한도를 확대해 언더라이팅 기준도 완화했다. 객진산 기자 jinsan@

윤석현 "코로나 대출, 여신검사·제재 없다"

금감원, 위기대응 총괄 회의 "유동성비율·예대율 등 규제 업계 의견 반영 완화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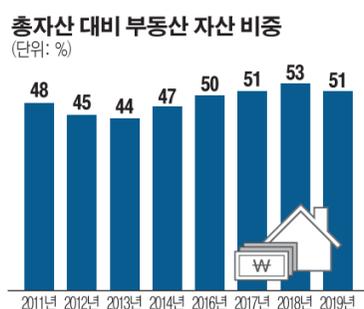
윤석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여신에 대해서는 검사, 제재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오전 윤석현 원장 주재로 임원 및 주요 부서장이 참석하는 '위기대응 총괄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대책 관련 현장 방문, 금융규제 개선 등과 관련해 당부했다. 우선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금융지원대책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 직원이 업

무 과정에서 느꼈던 건의 사항과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금융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아직 일부에서 금감원 제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여신에 대해서는 검사도, 제재도 없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은 개별 금융회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제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도 말했다. 유동성비율(LCR), 예대율 등 금융규제에 대해 업계 의견 및 해외 감독당국 대응 사례 등을 바탕으로 근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등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및 성과급 지급 중단을 권고하고 글로벌 은행들이 동참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과감한 대응 조치에 힘입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미·유럽 등 선진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으므로 위기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말라"고 강조했다. 서지연 기자 sjy@

부자들 '부동산 자산 비중' 5년 만에 줄었다

규제 강화에 작년 다주택자 매도 ↑ 전년대비 비중 2.2%p 줄어 50.9%



부자들이 강력한 규제에 의해 5년 만에 부동산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업소득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평균 41세에 종잣돈을 마련했고, 증여를 받는 나이는 35세였다. 2일 하나금융연구소가 하나은행 프라이빗뱅킹(PB) 고객 3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50.9%로 전년 대비 2.2%p포인트(p) 감소했다. 2013년 증가세를 탄 이후 5년 만에 꺾였다. 규제 강화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데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전세를 위해 증여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부자들은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업용부

동산(48%)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나이가 많고(60대, 54%), 자산이 많을수록(100억 원 이상, 55%) 그 비중은 더 컸다. 연구소는 "부자들은 투자목적 주택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후 노후준비를 위해 상업용 부동산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부자들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앞으로 5년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내다

봤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보는 전망은 전년 대비 10.6%p 감소한 반면 회복될 것으로 보는 전망은 12.5%p나 증가했다. 부자들은 언제 부를 축적할까? 평균 41세에 시드머니(종잣돈)를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소득이 32.3%로 가장 많았고, 상속·증여(25.4%) 순이었다. 자산이 많을수록 노후준비보다 상속·증여에 관심이 더 많았다. 세금 때문이다. 부자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기는 평균 65.2세였으며, 이때 자녀의 평균 나이는 34.9세였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현금과 예금 등 안정성 자산의 비중은 40.6%로 2018년과 거의 동일했다. 펀드·신약(27.6%), 주식(15.9%), 기타(11.1%) 순이었다. 특히 100억 원 이상의 초고액자산가는 주식 비중이 전체 23.5%로 평균 15.9%에 비해 매우 높았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토스 "車보험료, 주행거리만큼만 내세요"

캐롯손보 '퍼마일 車보험' 선택

바리퍼블리카는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후불자동차보험인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 자동차보험'을 토스 앱을 통해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 시 첫 달 기본료와 주행거리 1000km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선납하고, 이후에는 매달 자신이 운전한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한다.

토스 앱에서 본인의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캐롯손해보험의 간단한 비대면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월별 주행거리는 보험 가입 시 캐롯손해보험이 제공하는 운행 데이터 측정 장치를 차에 설치해 측정한다. 회사 측은 기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8~3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세워 두기도 버거워...항공기 반납하는 항공사들



기내식 없는 기내식 냉장실 항공업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2일 대한항공 인천 기내식 센터 냉장실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뉴시스

직원 45% 구조조정 이스타, 5대 축소·추가 감축 가능성 티웨이·에어부산, 도입 취소...“전쟁터서 총 버린 격” 허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항공기 도입 및 운영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당초 연내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었던 비행기 도입을 모두 보류하는 것은 물론, 기존 보유 항공기도 반납하는 등 항공기 보유대수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총 28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티웨이항공은 당초 올해 5대가량의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도입 없이 1대를 반납할 예정이다. 물론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었던 5대는 모두 잇단 추락 사고로 도입이 전면 중단된 B737 맥스8이었지만, 대체 항공기 추가 도입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티웨이항공은 연말 기준 보유 항공기가 27대로 줄어든다. 에어부산 역시 당초 올해 A321 NEO 2

대를 추가로 도입해 항공기 대수를 28대까지 늘릴 계획이었으나, 2대 모두 도입 계획이 무산됐다. 에어버스는 현재 A321 18대, A320 8대 총 26대를 보유 중이다. 2018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 제재로 지난해에도 항공기 도입이 제한됐던 진에어는 올해 역시 항공기 도입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최근 제재가 풀려 항공기 도입 자격은 주어졌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기존 비행기들도 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초 진에어는 2018년 B737-800 2대, B777-20ER 2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제재 이후 이 역시 중단했고 현재 26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부터 국적사 중 유일하게 보유했던 B737 맥스8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올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존 위협까지 느끼고 있어 현재 보유 중인 항공기 23대 중 연내 5대를 줄여 18

대로 축소할 계획이며, 추가로 반납할 항공기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이달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이스타항공은 수습 부기장 80여명의 계약 해지하는 등 구조조정과 무관했던 운항승무원까지 감축에 들어갔으며 결국 직원의 절반을 구조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항공사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구조조정 관련 내용을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기재 운용 등을 따져봤을 때 현재 필요 인력이 930명 정도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직원 수는 1680명으로 45%인 750명 정도를 구조조정하는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업계가 당장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인원 감축 등 인력 구조조정도 모자라 이제는 전쟁터에서 없었던 안 될 총과 같이 항공사 필수품인 항공기까지 반납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 없인 국내 항공사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현대제철 ‘HIT’ 혁신 선포 “작은 개선부터...직원 포상”

안동일 사장, 설비 효율화에 전사적 참여 독려

현대제철이 제철소 가동 10주년을 맞아 철강산업 본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을 본격화한다. 이번 혁신은 ‘혁신의 시작은 작은 개선으로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HIT(Hyundai steel : Innovation Together)’로 명명됐다.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1일 임직원 대상 영상메시지를 통해 “장차 산업의 미래는 설비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와 설비 강건화가 핵심”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 직원 참여형 혁신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3개 부문의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성과혁신 활동 △설비 강건화 활동 △술선 격려 활동이다. 우선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낭비요소와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해 근원적으로는 회사를 건강하게 만들고 가시적으로는 재무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설비에 의해 안전·품질·생산의 결과가 좌우되는 철강업 특성상 설비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인적·물적 불합리 요소를 발굴하고 설비 성능을 복원하고 정밀화,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원·관리자를 포함한 선임자들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혁신활동에 앞장서고 직원들의 혁신활동을 격려해 신바람나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이 1일 임직원 대상 영상 메시지를 통해 혁신 과제인 ‘HIT’를 설명하고 있다.

는 회사 분위기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안 사장은 “지난 수년간 심화돼 온 철강업계의 침체 기조에 더해 코로나19라는 북병까지 겹치며 전례 없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적 혁신활동만이 회사의 미래와 새로운 철강업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임직원의 혁신활동 참여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성과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별도의 포상제도를 신설한다. 성과혁신 수행과제 중 예상 효과를 바탕으로 포상 규모를 산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단계별로 심의를 거쳐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두산그룹 전 임원 급여 30% 반납

두산重 임원은 최고 50%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 정상화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원 급여 반납을 시행한다. 두산그룹은 2일 전 계열사 임원이 4월부터 급여 30%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급여 30%를 반납한다. 두산중공업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부사장 이상은 급여의 50%, 전무는 40%, 상무는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두산그룹이 급여 반납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두산중공업 정상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위기를 벗어나고자 2월 기술직 및 사무직을 포함한 만 45세 이상 직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접수했다. 또 (주)두산으로부터 두산메카텍을 현물출자받아 자본을 확충했다. 그럼에도 좀처럼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최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1조 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맺었다.

두산그룹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직원의 복리후생 성격의 지출을 억제하는 등 경비 예산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두산 관계자는 “전 계열사가 지구노력을 성실히 이행해 이른 시일 내 두산중공업의 정상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긴급자금 지원과 관련해 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대 기자 yeongdai@

포스코인터, 철강 가공사업 분할...포스코SPS 출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철강재 가공 사업 부문을 통합, 분할한 포스코SPS(POSCO Steel Processing & Service)가 2일 공식 출범했다. 포스코SPS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철강재 가공 사업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STS(Stainless Steel) △TMC(Transformer & Motor Core) △후판가공 3개 사업부문을 분할, 통합해 만든 회사다. 김학용 포스코SPS 사장은 본사 소재지인 천안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포스코SPS는 이번 통합을 계기로 철강가공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함과

동시에 모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그룹사와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시너지를 확대해 나가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SPS는 STS냉연·정밀재·모터코아 등을 생산, 유통하고 후판가공 및 철구조물 제작을 전문으로, 향후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철강소재를 취급해 안정적 수익 구조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 회사는 친환경 구동 모터코어, 수소차 연료전지용 소재 등 미래 핵심사업을 적극 육성해 ‘글로벌 톱 철강가공 솔루션 제공자’로 도약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포스코SPS 공장 전경.



BMW ‘520i M 스포츠 패키지’ 출시 BMW 코리아가 5시리즈의 가솔린 엔트리 모델에 M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한 ‘520i M 스포츠 패키지’를 2일 공식 출시했다. 520i M 스포츠 패키지는 최고출력 184마력, 최대토크 29.6kg·m의 힘을 내는 2.0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었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8초이며, 최고속도는 235km/h이다. 판매가격은 6550만 원. 사진제공 BMW

LS전선, 해저케이블 생산력 2.5배로 전 세계 5대뿐인 대형 제조설비 구축

동해 해저2공장 준공

LS전선은 2일 강원 동해시에 해저 케이블 2공장을 준공했다. 이번 준공으로 해저 케이블 생산능력이 2.5배 증가하게 됐다. 해저 2공장은 대지면적 10만4000㎡에 건축면적 8800㎡ 규모다. 작년 3월에 착공, 약 500억 원을 투자해 1년여 만에 준공했다. LS전선은 해저 2공장의 준공으로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 2009년 해저 케이블 시

장에 진출한 지 10여 년 만에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저 케이블 사업은 최근 세계 각 대륙에서 해상풍력단지화 대규모 관광 섬 개발 확대 등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해저 2공장은 이를 반영, 초고압의 케이블을 대규모로 생산·보관·운반할 수 있는 설비들로 구축했다. 구자업 LS전선 회장은 기념사에서 “해저 케이블 사업은 그동안의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이제 자립과 성장의 터전을 만들

어 냈다”며 “제2공장 준공은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며, ‘글로벌 케이블 솔루션 리더’라는 목표를 향한 의미 있는 행보”라고 말했다. 해저 전력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지름 30cm 내외의 케이블을 한 번에 수십 km까지 연속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 제조 설비가 필수적으로, 설비 자체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다. LS전선 관계자는 “대부분 설비를 자체 개발했으며, 특히 50m(아파트 18층) 높이의 대형 제조 설비는 전 세계적으로도 5대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5톤 트럭 1000대 분의 케이블을 한 곳에 감아 보관할 수 있는 5000톤급 텐테이블도 추가로 도입했다. 송영록 기자 sy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대한민국은 이길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

텅 비어버린 거리에서도
굳건히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

수많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켜내는 자가격리자와 환자분들

그 동안의 모든 고난도 결국 이겨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모델
휠체어펜싱 김선미 선수

LG 렌탈 자회사 매출 1000억→2000억→3800억

유지·보수 담당 '하이엠솔루텍' 올해 4000억 돌파
코로나에 위생 관리 주목...올 11조 시장으로 성장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 LG전자 렌탈 제품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담당하는 LG 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3000억 원을 돌파했다.

2일 하이엠솔루텍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3760억 원, 영업이익 85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018년 2926억 원에서 29% 늘었고, 영업이익은 28억 원에서 약 3배 증가했다.

하이엠솔루텍은 감사보고서를 처음 제출한 2010년 매출액 386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14년 1043억 원으로 1000억 원대에 처음 진입했다. 3년 만인 2017년에는 2087억 원을 기록하며 2000억 원을 돌파했고, 다시 3년 만에 매출 3000억 원을 훌쩍 넘겼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에는 4000억 원대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적 성장에 따라 하이엠솔루텍의 인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856명이던 임직원 수는 2018년 1123명으로 30% 넘게 늘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2일까지케어솔루션 서비스 및 교육기획 경력직원을 모집 중이다.

하이엠솔루텍이 이처럼 고속 성장을 하는 건 렌탈 시장의 성장 덕분이다.

2017년 1605억 원이었던 LG전자 가전 렌탈 매출은 2018년에는 2942억 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4398억 원을 기록했다.

LG전자는 포화상태인 가전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009년 정수기를 시작으로 렌탈 사업에 진출했다.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갔고, 2018년 11월 가전제품 렌탈 관리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케어솔루션'을 선보이며 작년 실적에 다시 한번 급성장했다.

현재 정수기, 공기청정기, 건조기, 전기레인지, 스타일러, 안마의자, 얼음 정

수기 냉장고, 맥주 제조기 등 8가지 제품으로 렌탈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엔 미세먼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생에 신경 쓰는 소비자가 늘면서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등의 성장세

가 높다. 여기에 1인 가구와 고령 인구 증가라는 환경 변화, 구독경제 확산 등 소비 트렌드가 맞물려 앞으로 렌탈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T경영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생활가전 렌탈시장은 2011년 3조7000억 원에서 2018년 7조6000억 원으로 규모가 커졌으며, 올해는 10조7000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렌탈 가전은 한 번 구입하면 그만인 기존 제품과 달리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어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일시불이나 할부(최장 12개월)로 구매하기 힘든 가전제품을 3년 이상 분할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태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등 환경 가전의 인기에 따라 LG전자 렌탈, 관리 수요가 늘고 있다"며 "맥주제조기 등 잇따라 신가전도 선보이고 있어 렌탈 사업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붉은 대게살과 소스의 황금비율 몬스터크랩 바디



진~한 대게딱지장에 비벼! 비벼!

매콤한 초고추장에 비벼! 비벼!

한성기업 HANSUNG ENTERPRISE

"크래미"와 "Crami", "몬스터크랩"과 "Monster Crab"은 한성기업(주)의 등록상표입니다. ©2019. HANSUNG Enterprise

〈전 금융위원장〉

한진칼 이사회 의장에 김석동 선임

사외이사에 맡겨 독립성 강화
대한항공 의장도 외부인으로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특히 김 의장이 2011년 저축은행실화 사태를 해결하고 금융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 경험이 한진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의장에 처음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한진칼은 2일 이사회를 열어 김석동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에 선임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부로 한진칼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놨다. 이와 함께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조 회장을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한진칼은 2월 이사회를 통해 이사회 규정을 개정, 대표이사가 맡도록 돼 있는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표이사 외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을 감시하는 이사회 역할을 더욱 강화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김 선임 의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 등을 역임하면서 '대책반장'이라는 별명을 얻은 금융·행정 전문가로, 35년간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한 기업가치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진칼 관계자는 "김석동 의장의 선임에 따라 한진칼 이사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경영 활동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도 한층 공고해지는 한편 한진칼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룹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이번 주총에서 대표이사 외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정관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조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선임 사외이사인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에게 외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의장직을 맡겼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삼성 AI 빅스비, 연예인 목소리 입혔다

배우 강소라·김소현·김예원 등 '셀럽보이스' 서비스 기기 확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빅스비에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빅스비 음성을 셀럽의 목소리로 설정할 수 있는 '빅스비 셀럽 보이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에 처음 탑재되는 화자(話者) 라인업은 배우 강소라·김소현·김예원 씨다. '빅스비' 설정 페이지(사진)에 들어가 '언어 및 음성 스타일' 섹션을 누르면, 음성 스타일 메뉴에서 셀럽의 목소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과 스피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추후 전체적인 삼성 모바일 제품군과 TV 등 빅스비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빅스비는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음성 서비스를 텍스트 음성 변환(Text-To-Speech, TTS)으로 구현했다.

삼성전자는 빅스비 셀럽 보이스 출시를 기념해 6일부터 24일까지 강소라·김소현·김예원 씨 중 빅스비 사용자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셀럽을 선정하고, 해당 셀럽을 선택한 사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세계 첫 5G 상용화 1년... 글로벌 '통신 강국' 도약

우리나라가 3일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1년을 맞았다. 상용화 10개월 만에 5G 가입자 500만 시대를 열었고, 올해는 1000만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년간 스마트폰 5G 단말기 보급은 세계 1위, 5G 장비 공급도 세계 3위로 우뚝 섰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5G+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평창올림픽이 열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 말 로드맵(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제시하고,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주파수 경매(2018년 6월)를 계획 대비 1년 앞당겨 실시하고,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필수설비 공동구축·활용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5G 단말기 도입과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및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5G 체험관을 운영해 해외에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5G 장비·단말에 대한 전파 인증을

전국 85개 시에 11만 기지국을 가입자 1000만 돌파 목표 스마트폰 5G 단말기 보급 1위 장비 공급도 세계 3위로 우뚝

진행했다. 2018년 12월 1일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발사하고, 모바일 라우터 기반 B2B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정부는 2019년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KOREAN 5G Tech-Concert'로 이름 붙인 상용화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세계 최고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5G+ 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15대 5G+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5G 기반 스마트 공장 고도화 전략, 5G+ 스펙트럼 플랜 등 10여 개의 후속정책을 범부처 차원으로 수립해 추진 중이다.

◇5G 1년의 기록...세계 1위로 우뚝 = 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출연진과 함께 5G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있다.

G 상용화 이후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분야에서 상용화 첫 해부터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해외 수출계약 체결, 5G 국제협력 등 '5G KOREA'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장 가입 고객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상용화 약 10개월 만에 5G 가입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5G 기지국은 전국 85개 시에서 약 1만9000국을 구축했다.

단말·장비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이 세계 최초로 5G 단말을 출시한 이후 듀얼스 크린, 폴더블 스마트폰, 5G 태블릿 등을 출시해 시장을 선도(삼성전자 43% 1위)하고 있다. 5G 장비도 세계시장 3위로 기존 견고했던 통신장비 3강(화웨이-에릭슨-노키아)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1년 만에 업계 3위로 올라섰다.

정부는 5G 상용화 직후부터 추경으로

약 230억 원을 편성하는 등 3400여억 원을 투입, 5G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했다. 올해는 87% 증가한 6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5G 콘텐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실감콘텐츠 5대 분야 선도과제 제작(28개)을 지원하고, 초기 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펀드(300억 원)를 조성했다. 해외에 5G 콘텐츠 공급을 위해서는 미국(LA), 베트남(호찌민) 등에 5G 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했다.

이재훈 기자 yes@

하현회 부회장 "5G, 세계로 뻗어나가자"

(LG유플러스)

"코로나 위기, 기회로 바꿀 때 초심으로 돌아가 전열 재정비 고객 쓴소리 기억해 개선하자"



하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 통신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

노력으로 'LG유플러스 5G 서비스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고객에게 인식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가입자 1500만 명(2월 기준)을 돌파했고, 통신사 최초로 중국·일본·홍콩 등의 주요 통신사들에 5G 서비스와 솔루션을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5G 글로벌 본격 진출의 원년으로 삼는다. 하 부회장은 "지난해 LG유플러스를 방문한 30여 개 주요 통신사 관계자들의 U+5G 서비스를 접한 반응을 보고 '2020년은 우리의 기술과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해로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유플러스가 강점을 가진 5G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자"고 말했다.

임직원에게 '초심'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 부회장은 "1년 전 5G 상용화를 시작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자"며 "요금이 비싸다거나 불편한 콘텐츠가 없다는 등 고객의 쓴소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우람 기자 hura@

"5G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자."

하현회(사진) LG유플러스 부회장은 2일 임직원에게 보낸 사내 메시지에서 "지난 1년은 치밀한 준비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LG유플러스 5G 서비스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고객에게 인식 시킨 한 해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하 부회장은 상용화 1주년임에도 "5G가 안 터져 LTE를 쓴다"는 고객의 쓴소리가 여전하다"며 "꼭 기억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바뀐 업무 환경에 대해선 "새롭게 변하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업무방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되고, 국내 사업 전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가 쌓아온 5G 성과를 기반으로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글로벌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하나, 현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사적으로 전열을 재정비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라며 "서비스, 마케팅, 영업, 품질, 네트워크 관리 등 전 영역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과제들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의 5G 상용화 1년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 부회장은 "지난 1년간 치밀한 준비와 헌신적인



"기가지니가 더 똑똑해졌어요"

KT가 콤팩트한 디자인의 인공지능(AI) 스피커 '기가지니 미니'와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가지니 테이블 TV 더 블랙'을 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기가지니 미니는 한 손에 잡히는 사이즈와 하만커튼 스피커를 장착해 고품질의 음원을 들을 수 있고 기가지니 테이블 TV 더 블랙은 셋톱박스 기능에 11.6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개인용 AI TV로 활용할 수 있다. 모델들이 기가지니 미니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KT

'소상공인 긴급대출' 첫날 3352건 접수

사전상담예약시스템·홀짝제 등 대출 병목 해소 노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첫날 3000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편의성을 높여 '대출 병목현상'을 방지하고 있다.

2일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지원공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만 원 직접대출은 총 3352건이 접수됐다. 금액으로 총 357억 원에 달한다.

소진공은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금 대출서류 준비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행안부 지자체와 협조해 전국 11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설치하고 번호표 대체를 통한 스마트대기시스템을 통해 상담순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 직접대출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날부터는 직접

대출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홀짝제'를 도입, 신용등급에 따른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창구를 다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병목현상은 단계적으로 해소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오전 6시 30분 기준으로 전국 주요 센터의 현장 대기인원은 △수원센터 70명 △서울 중부센터 40명 △대구북부센터 37명 △서울 서부센터 34명 △안산센터 30명 △의정부센터 26명 △성남센터 20명 등이다.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중기부 산하 전국 62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4~10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을 연 1.5%의 이율로 보증서 없이 신속 대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직접대출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기업은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일 전국 611개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총 1만4051건, 금액으로는 3685억 원이 접수됐다.

이다원 기자 leedw@

서울바이오시스 "광반도체 기술로 '코로나19' 30초 만에 99.9% 살균"

공기청정기·냉장고 등 다양한 전자기기 활용 가능

UV LED 솔루션 기업인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 자회사 세티(SETI)와 양산하고 있는 광반도체 '바이올레드(Violeds)' 기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불과 30초 만에 99.9% 살균했다고 밝혔다.

2일 서울바이오시스에 따르면 이는 바이올레드 살균실험을 고려대학교 연구팀

에 의뢰한 결과다. 실험 결과 바이올레드 빛(Photon)을 30초 비췄을 때 코로나바이러스 99.9%를 살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바이올레드 빛과 가까울수록, 노출 시간이 길수록 살균력이 더욱 향상됐다. 광반도체인 바이올레드 기술은 서울바

이오시스가 미국 SETI와 함께 2005년부터 개발한 신개념 정정 기술이다.

이는 살균과 탈취 기능을 가진 UV LED를 응용해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 없이 오직 빛으로만 세균 발생과 증식 등을 방지하는 서울바이오시스의 기술 브랜드로,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폐렴균 등 유해균을 99.9% 살균할 수 있다.

서울바이오시스 측은 이번 실험으로 바이올레드 기술이 코로나바이러스까지 직접 살균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입증된 만큼 앞으로 이 기술이 공기청정기나 공조기, 냉장고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활용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이다원 기자 leedw@

“만났다면 대박” 유통가는 ‘펭수얌이’

GS25 펭수 프레시푸드 4종 출시 4일 만에 50만 개 팔려 SPC 펭수빵 2주 새 100만 개 이마트 펭수 장바구니 등 유통채널마다 ‘펭수 손잡기’



EBS의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가 유통업계 흥행보증수표로 부상했다. 유통·식품업계는 지난해부터 펭수가 인기를 얻자 앞다퉀 모델로 발탁하고 관련 한정판을 내놓는 등 1020세대를 겨냥한 펭수 마케팅에 앞장서었다. 실제로 펭수를 기용해 소위 ‘대박’을 낸 사례까지 등장했다.

GS25는 지난달 27일 출시한 펭수 프레시푸드 4종(사진)이 나흘간 50만 개 이상 판매됐다고 2일 밝혔다. 펭수 프레시푸드는 출시 첫날 전 점포에서 20만 개 이상 주문될 만큼 높은 호응을 얻었다.

펭수 우산과 펭수 양말의 판매도 크게 늘었다. 펭수 우산은 30배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고, 펭수 양말은 출시되자 전체 양말 매출도 250% 신장했다. GS25는 3일부터 펭수 프레시푸드를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SPC삼립의 ‘펭수빵’도 출시 2주 만에 누적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했다.

SPC삼립은 펭수빵이 초반부터 돌풍을 일으키자 디저트 브랜드 ‘카페스노우’ 제품 2종에 펭수 캐릭터를 적용한 신제품을 추가로 선보였다. ‘펭수빵’은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펭수 유행어인 ‘대박’을 콘셉트로 한 빅(big) 사이즈의 제품으로 ‘러블리 우유롤’, ‘스위트 페이스리’, ‘엠텔엠텔 초코파베기’, ‘터질듯한 팡퐁미니샌드’ 등 5종으로 구성됐다.

SPC그룹은 던킨도너츠를 통해서도 펭

수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펭수’와 협업한 ‘펭수 도넛’을 1일 출시했다. ‘펭수 도넛’ 2종은 ‘펭-펭 코코넛 버터밀크도넛’과 ‘펭-하 코코넛 버터크림필드’로 구성됐다.

동원F&B도 최근 ‘펭수잡치’ 15종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펭수잡치 선물세트’ 한정판을 출시했다. 명절이 아닌 시기에 선물세트를 선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펭수잡치 선물세트’는 펭수의 귀여운 표정과 재치 있는 어록이 담긴 ‘펭수잡치’ 15종을 담은 선물세트로 한정 5000세트만 선보인다.

펭수의 인기는 식품업계를 넘어 유통채널로까지 번지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펭수를 활용하는 업종은 대형마트다. 코로나19로 줄어든 고객의 발길을 펭수로 되돌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마트는 2일부터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펭수 캐릭터가 그려진 한정판 장바구니를 선보였다. 한정판 펭수 컬러바 장바구니는 ‘소형(17L)’, ‘중형(35L)’, ‘컬러바 장바구니와 ‘스페셜 펭수 구니백(오리지널·그래피티, 각 24L)’로 구성됐다. 소형, 중형 컬러바 장바구니는 각각 10만 개, 5만 개씩 준비했으며, 스페셜 펭수 구니백(장

바구니+백팩)은 오리지널 5000개, 그래피티 5000개 총 1만 개를 준비했다.

앞서 이마트는 과자, 즉, 초콜릿 등으로 구성된 ‘피코크×펭수 컬러바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최후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펭수와의 컬러바는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2030세대들이 오프라인 이마트 매장을 방문하게 하려는 마케팅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적 사고를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걸맞는 다양한 상품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펭수 양말’을 내놨다. 펭수의 유행어인 ‘펭-하!’, ‘펭러뷰’ 등을 외치는 모습을 재치 있게 담았다. 3가지 사이즈(S·M·L), 4가지 색상(노란색·빨강색·파랑색·검은색)으로 구성됐다.

11번가도 지난달 펭수×스파오(SPAO) 협업 신상품을 판매했다. 지난해 선보인 펭수 협업상품은 조기 품절되기도 했다.

광동제약, 빙그레, 미닛메이드 등이 펭수를 광고 모델로 발탁했으며 LG생활건강도 ‘샤프란 아우라 펭수 에디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유행희 기자 yhh1209@

장바구니 물가 ‘들썩들썩’ 서민경제 덮친 코로나19

집밥·위생관리 수요 늘자 식재료·생활용품 중심 급등

판매 가격 인상 품목 (단위: 원)

제품 및 품목명	단위 (용량)	금주 가격 (전주 대비)
쪽파(홍쪽파)	100g	464(47.77%)
매일유업 빠로기는 칼슘치즈	270g	6,858(14.41%)
깨끗한나라 3겹데코 순수	30롤	19,083(10.63%)
감자	100g	531(9.94%)
샤프란 케어(은은한 향)	900ml	7,924(8.82%)
하림 토종달걀속	1050g	9,853(6.75%)
고구마(참고구마)	100g	514(6.20%)
갈치(냉동)	100g	2,447(5.98%)
고등어(생물)	1마리	4,247(5.80%)
참크래커	280g	3,166(4.11%)

* 하림 토종달걀속은 한 마리 기준 * 출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채굴물가는 더 올랐다.” 통계청은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 2일 발표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밥을 먹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데다 꼼꼼한 위생 관리까지 더해지면서 식재료 물가와 세제 등 생활용품 가격이 치솟았다.

이투데이가 2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서비스인 참가격을 분석한 결과 금주 가격이 전주 대비 1% 이상 오른 품목은 40여 개에 달했다.

계절적 요인이나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폭이 큰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과 휴지, 세제 등의 가격도 출렁였다. 한 주 만에 가격이 10% 이상 오른 품목도 있었다.

참가격은 매주 전국 대형마트, 재래시장, SSM 등 전국 유통채널의 실제 판매가를 분석해 가격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과자·음료의 경우 1%대로 가격 인상이 적었지만 참크래커(크라운제과)는 4.11%, 비타민 음료인 비타파워(롯데칠성)도 2.58% 각각 올랐다.

사재기 대표 품목인 휴지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깨끗한나라 30롤은 전주 대비 10.63% 오른 1만9083원의 평균가격을 기록했다. 물티슈와 미용티슈도 2~3%가량 뛰었다.

세제와 섬유유연제의 가격도 눈에 띄게 올랐다. 퍼실, 유한젠, 참그린 등의 가격이 올랐고 섬유유연제 1위 브랜드 샤프란(LG생활건강)도 8.82% 가격이 상승했다.

집밥 증가세로 인해 신선식품 일부

와 가공식품의 가격도 줄줄이 인상됐다. 고등어는 마리당 5.8% 오른 4247원의 평균가격을 보였고 냉동갈치(100g)도 1.98% 올랐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닭고기 가운데 토종달걀속(1050g)은 6.75%나 가격이 뛰었다. 쇠고기는 구이용 등심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쫄면류 가격변동이 없는 양념류 가격도 집밥 트렌드로 인해 일부 움직였다. 참장, 참기름, 케찹, 굴소스까지 줄줄이 1~5%가량 인상됐다.

채소류는 쪽파가 47.77%나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감자(9.94%), 고구마(6.20%) 순으로 인상이 컸다.

유통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물가 상승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공품의 경우 프로모션을 중단하면 가격이 오를 듯한 착시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다”며 “세제나 세정제 등 생활용품의 경우 과거 1+1 등 프로모션이 많았지만 최근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다소 축소돼 소비자가 인상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신선식품은 집밥 수요 증가로 앞으로도 인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행희 기자 yhh1209@



사상 첫 온라인 개학 국민가격 노트북으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이마트가 2일부터 노트북, 컴퓨터용품 및 학습용 가구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마트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가성비 노트북인 ‘일렉트로북’을 행사카드 구매 시 20만 원 할인한 49만 9000원에 판매했다. 사진제공 이마트

국내외서 사랑받는 ‘박카스’ 사상 첫 年매출 3000억 돌파

작년 수출 905억 10년 새 45배 ↑

자양강장제 ‘박카스’가 출시 58년 만에 처음으로 연매출 3000억 원을 돌파했다. 안정적인 내수 매출과 급속한 수출 증가가 기록적인 수치로 이어졌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동아제약의 박카스 매출액은 2343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2248억 원) 대비 4.2% 증가한 규모다. 동아제약은 내수 판매와 베트남 지역을 맡고 있다. 박카스의 성장세는 해외에서 더욱 가파랐다. 박카스 수출을 담당하는 동아에스티



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90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8년(715억 원)보다 26.6%나 늘었다.

10년 사이 박카스 수출액은 45배 이상

늘었다. 2009년에는 20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2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5년 500억 원대로 뛰었다.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1000억 원 고지에 바짝 다가섰다.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은 캄보디아다. 동아에스티는 박카스를 2010년 캄보디아에 처음 선보였다. 유리병 대신 캔에 담긴 박카스는 캄보디아에서 ‘바까’라 불리며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밖에 필리핀과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 중이다.

박카스에 힘입어 동아에스티 해외사업부는 전년 대비 13.5% 성장한 159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994년 연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박카스는 2015년 제약업계 단일 제품 최초로 국내 시장에서 2000억 원을 돌파한 바 있다. 유행희 기자 euna@

CJ오쇼핑, 협력사와 상생 ‘소중한 이야기’

매월 우수 파트너사 홍보 지원 첫 주인공 안경 전문 ‘태석광학’

CJ 오쇼핑이 상생 홍보 캠페인으로 협력사 돕기에 나섰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중소기업의 홍보와 광고를 지원하는 ‘소중한 이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소중한 이야기’는 우수 파트너사의 제품과 기업 소개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홍보와 광고를 집중 지원해주는 캠페인이다. 캠페인명은 ‘소(小)상공인과 중(中)소기업의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는 의미와 함께 ‘CJ ENM 오쇼핑부문의 소중한 파트너를 소개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대상은 CJ 오쇼핑부문과 함께 성장해 온 협력사 중 상품력이 우수하고 협력 관계가 두터운 우수 파트너사다. 이 중 매월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발된 협력사는 해당 월에 기업과 제품 소개, 지면광고 등의 콘텐츠를 통해 회사와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남주현 기자 jooh@



첫 협력사는 아이웨어 전문회사인 ‘태석광학’이다. ‘태석광학’은 선글라스와 안경을 생산하는 국내 흡수광업계 아이웨어 부문 1등 기업이다. 태석광학 콘텐츠에는 CJ오쇼핑과 함께 자체 브랜드 ‘서포트라이트’를 론칭한 스토리와 오프라인 면세점으로 채널 확장을 이룬 내용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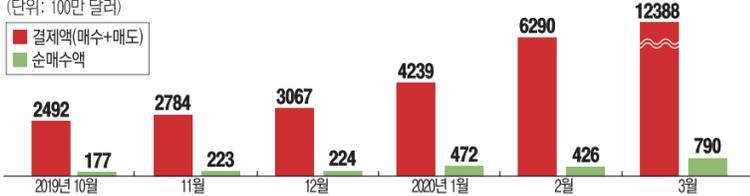
‘동학개미운동’ 美 증시도 넘본다

코로나 여파 ‘저가매수’ 기회로 애플·알파벳·테슬라 매수 행진 3월 123억 달러 전월比 98% ↑

지난달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월별 결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증시가 주춤하자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려는 국내 투자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의 미국주식 결제액은 총 123억6992만 달러(약 15조3134억 원)로 전월(62억9029만 달러)보다 97.94% 급증했다. 전년 동월(24억3911만 달러)과 비

국내투자자 월별 미국 주식 결제액 및 순매수액 현황



교하면 4배가 넘는 규모다.

순매수액도 7억8997만 달러로 전월보다 85.37% 늘었다. 국내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세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국내 증시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미국에선 경쟁사인 애플을 장바구니에 담았다는 점이다.

지난달 국내 투자자는 애플(APPLE)

을 2억5917만 달러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종목 중 순매수액 기준 1위다. 이어 알파벳(ALPHABET INC-CL C)을 8094만 달러, 테슬라(TESLA)를 7048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6978만 달러 사들였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미 증시 상승세를 이끌던 기업들이다. 1일(현지시간) 기준 애플 주가는 240.91달

러로 2월 12일 기록한 고점(327.20달러) 대비 26.37% 낮아진 상태다.

유가 급락과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화로 미 증시가 3월 들어 급락세를 보이자 국내 투자자들은 낙폭이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격적인 매수에 나섰다.

특히 거래가 몰린 종목은 미 증시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였다. 결제액 순으로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프로 QQQ(ProShares UltraPro QQQ)’가 7억4247만 달러 거래가 이뤄져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나스닥100 지수의 일일 등락률을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다. 순매수액도 3539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수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 기대에 ‘한방’을 노린 투자가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바람과 달리 미 증시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뉴욕 주요 지수는 지난달 23일 저점 이후 반등세를 타다가 최근 연이틀 하락세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현지시간)에는 다우지수(-4.44%), 나스닥지수(-4.41%), S&P500 지수(-4.41%) 등이 4% 이상 급락했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피해 척도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지표들이 하나씩 발표되기 시작했다”며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불가피하겠지만 바이러스 불안감과 정책 안도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자본 확충 속도... 3년 새 112% 증가

상장사 재무 분석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가 실적 성장 속에 자본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년 새 자본총액은 1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프리카TV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6% 증가한 1679억 원, 영업이익은 35.4% 늘어난 367억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342억 원으로 60.1% 증가했다.

회사 측은 “기부경제선물 및 광고매출 증가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부경제선물은 아프리카TV 방송에서 사용되는 ‘별풍선’ 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매출 중 기부경제선물 등으로 올린 매출은 1285억 원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광고 및 콘텐츠 제작은 17.3%로 뒤를 이었다.

기부경제선물 비중은 2017년 83.8%에서 지난해 70%대 중반까지 줄어든 반면

아프리카TV 재무손익 현황

(단위: 억 원)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946	1266	1679
당기순이익	147	213	342
이익잉여금	284	469	762
자본총액	701	929	1218

* 출처: 금융원 전자공시

기부경제선물·광고 매출 증가세

작년 당기순익 342억 60% 경증

코로나 확산에 언택트 수혜 기대

광고 비중은 14.5%에서 17.3%까지 늘어나는 등 사업 전반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는 모습이다. 기부경제선물의 비중은 70%대까지 낮아졌지만 절대액만큼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488억 원이었던 매출은 2018년 10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285억 원까지 올랐다.

아프리카TV는 200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으로, 최대주주인 세이브인터내셔널(25.3%)이다. 국민연금이 5%, 모건스탠리 계열 펀드(MORGAN STAN-

LEY AND CO INTERNATIONAL PLC)가 3.5%를 보유 중이다.

회사는 꾸준한 성장 속에 2016년 순이익 첫 100억 원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147억 원, 213억 원, 342억 원 등 급성장해 왔다. 이에 이익잉여금은 지난해 762억 원을 기록해 3년 새 4.6배 늘었다. 같은 기간 회사의 전체 자본도 573억 원에서 1218억 원으로 112.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성장에도 약간의 제동이 걸린 상태다. 회사 콘텐츠의 한 축을 맡고 있던 e-SPORTS 행사가 취소되는 등 광고 부문에서의 실적 감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다행히 매출 비중이 큰 기부경제선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비대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 실적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아프리카TV의 1분기 영업이익은 9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매출 75% 이상 차지하는 아이템 매출 성장세가 2분기 이후로도 확장된다면 밸류에이션 상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거래소 ‘시총 30% 상한제’ 삼성전자에 적용 안 한다

국내외 지수 병행 산출 제시 상한제 개선 방안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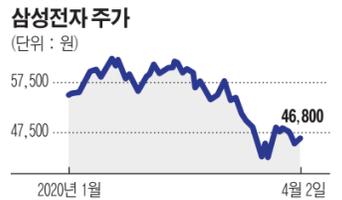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과 관련 ‘30% 상한제(CAP)’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 지수 및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 시총 비중 상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자체 개선안에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내용 지수와 상한제를 적용한 해외용 지수를 병행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삼성전자에 대해 30%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내용 지수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법령 개정에 나섰다 때문이다. 전날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코스피200 등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운용사가 해외시장에 ETF를 상장할 때 해외용 지수를 이용할 수 있고, 해외용 지수를 활용한 국내 ETF 상장도 가능하다”며 “이용자에게 다양한 지수 선택권을 주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주가지수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펀드는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30%에 맞추기 위해 초과 물량을 팔아야 해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이미지 제고’냐 vs ‘이미지 세탁’ 이냐

사명 변경 코스닥 상장사

사업다각화·새 모멘텀 창출 노력 일부 기업은 거래 정지 악재 겪어 “투자자 기업 재무 상태 확인해야”

주주총회 시즌 전후로 상호를 변경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명분은 사업 다각화 추진과 기업 이미지 제고다. 하지만 일부는 거래 정지, 주가 급락 등 악재를 겪은 기업들로 사실상 ‘이미지 세탁’ 목적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과거 재무상태 등이 불안정했던 기업도 섞여 있는 만큼 기업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월 들어 현재까지 총 20개의 코스닥 상장사가 사명을 변경했거나 진행 중이다. 포티스, 에스엔텍비엠, 한솔시큐어, KJ프리트릭, 제이엘케이인스펙션, 유니맥스글로벌, 이지웰페어, 바이오제네틱스 등이 새로운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사명 변경 이유 중 65%에 해당하는 13개 상장사가 이미지 제고로

사명 변경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이어 신규 사업 추진(3곳), 새 모멘텀 창출(2곳) 등이다. 이 밖에 영문명 변경과 합병에 따른 사명 변경도 각각 한 곳씩 있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이끄는 헤지펀드가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 복지물 업체 이지웰페어의 경우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사명을 이지웰로 변경했다. 복지물 이외에도 계열사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더 부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달 이지웰은 계열사 이지웰니스를 통해 불면증 치료 사업에 진출했고, 본사 차원에서 바이오 기업과 제휴를 맺고 정기구독 서비스 상품을 늘리고 있다.

동양피앤에프와 하이셉은 기업 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싶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디와이피엔에프, 에이팩트로 사명을 바꿨다. 반면 일부 기업의 경우 사명 변경 전후로 주가 거래가 정지되거나 소송 피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등의 악재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명 변경 기업 중 4곳이 거래정지 상태다. 이 중 씨케이코퍼레이션(구 포티스)와

이큐셀(구 에스엔텍비엠)은 범위 제한과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씨케이코퍼레이션은 지난달 11일 최대주인 이노그로스가 지투인베스트에 담보로 맡긴 주식 전량이 기한이익 상실로 반대매매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동전주로 전락했다. 곧이어 결손 보전을 위해 30대 1 비율 감자를 결정하는 등 사명 변경 이전에 회사 상황이 급변하며 악재가 이어져온 상태다.

이엠엔아이(구 KJ프리트릭)와 아이톡시(구 와이디온라인)는 횡령 배임, 벌점 누적 등의 사유로 거래가 정지돼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 이 기업들 모두 최근 작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시했다. 다만 이엠엔아이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재재 면제를 사전에 신청했다.

일부 기업은 소송전에 휘말렸다. 이큐셀은 전일 코스닥 상장사인 세미콘라이트로부터 총 41억 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 청구 소송에 피소됐다고 밝혔다. 사명을 바꾸고 불과 이틀 후 시점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0년 4월 2일 17:00, KST)

9,726,467 8,747,839 9,507,645 11,325,701 8,497,323 8,070,000원

310,213 166,226 177,077 280,052 198,310 166,700원

전일 대비 358,000원 (4.6%▲) 6개월 대비 -1,801,484원 (18.2%▼)

전일 대비 5,500원 (3.4%▲) 6개월 대비 -43,694원 (20.8%▼)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74,600	10,300 (3.9%▲)	모네로	59,050	1,500 (2.6%▲)
리플	215	5 (2.4%▲)	비트코인골드	8,900	355 (4.2%▲)
라이트코인	48,030	890 (1.9%▲)	이더리움 클래식	6,115	165 (2.8%▲)
대시	79,800	1,200 (1.5%▲)	퀀텀	1,501	33 (2.2%▲)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더 좁아진 'PF 대출'... 후분양 아파트 '돈맥경화' 우려

코로나 경제 위기 불안감 확산
은행·증권사, 리스크 관리 강화
신규 부동산 PF 심사 보류 늘어
지방 중소건설사 대출 막힐 듯

서울시내 후분양 추진·검토 아파트 단지

- 마포구 아현동 아현2구역 재개발 단지
-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 단지
- 송파구 신천동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단지
- 송파구 신천동 잠실신주아파트 재건축 단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여의도
-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 강동구 길동 길동신동아·2차아파트 재건축 단지

최근 한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장에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시중은행 여러 곳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담보 평가 없이 미래 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법) 신디케이트드론(여러 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해 자금을 함께 대출해 주는 것)을 요청했다. 일부에선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다수 은행이 난색을 보이면서 대주단 구성은 무산됐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대주단을 꾸리지 못해 대출이 안 되거나 연기된 경우가 최근에 여럿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대출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민감한 후분양 아파트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분석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은 부

동산 PF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거시 경제 불안감이 커진 데다 부동산 경기 하강론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다"며 "아직 일선 지점에 지침을 내리거나 한 건 아니지만 본사에서 건전성 유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은 PF 대출에서 핵심 분야로 꼽힌다. 주택 건설 등 부동산 개발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수익은 분양 등을 마

친 이후에 창출되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부도 위험에 노출된 금액)은 지난해 6월 기준 99조9000억 원에 이른다.

은행권은 그간에도 부동산 PF 관리를 강화해왔다. 2009년 이후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건설사·시행사에게 PF 대출을 해줬던 은행까지 연쇄 타격을 입었던 트라우마 때문이다. 2013년만 해도 은행권 PF 대출 잔액은 21조500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상반기엔 18조9000억 원으로 줄었다. 은행업계에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PF 대출 기준이 더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

증권업계 움직임은 은행권보다 더 뚜렷하다. 대부분 증권사가 신규 부동산 PF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기존 PF 사업도 취소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은행권이 대출 기준을 강화한 이후 PF 대출시장을 주도했다.

PF 대출이 까다로워지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형 부동산 사업장은 PF 대주단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

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선 특히 아파트 후분양 사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아파트 후분양은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착공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 아파트보다 분양 수익이 늦게 발생하기 때문에 PF 대출 의존도가 높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후분양은 공공주택 등에서 한시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후분양으로 돌아서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분양이 늦어지면 사업비 조달 부담은 늘지만, 분양 때까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면 그만큼 분양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론 적용 지역 등에서 이 같은 흐름이 더 커졌다.

서울에선 아현동 아현2구역(재개발), 반포동 신반포15차(재건축), 신천동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재건축), 여의도동 브라이튼여의도 등이 후분양을 결정했다.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 신천동 잠실신주아파트(재건축), 길동신동아1·

2차아파트(재건축) 등에서도 후분양을 고심하고 있다.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을 마르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 후분양 단지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서울에서 후분양 아파트를 시공하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아 일반분양 규모가 작아서 PF 대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지방에서 아파트를 후분양하는 중소 건설사는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흥행력이 불투명한 단지나 자본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 입장에서선 높아진 대출 문턱을 실감할 것이라는 얘기다.

후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재건축 단지의 한 조합원은 "현재 상황에서 PF 대출이 줄거나 이자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후분양을 주장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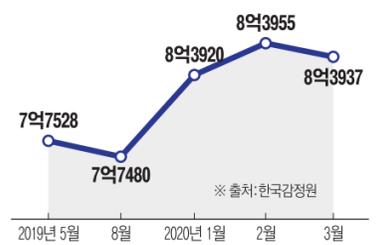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9개월 만에 하락 전환

중위매매가도 0.02% ↓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월별 추이
(단위: 만 원)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9개월 만에 하락했다. 대출 규제와 자금 출처 증빙 강화로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진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확대되면서 매수 심리가 잔뜩 움츠러든 영향이다. 포퓰얼 얼어버린 매수심리에 서울 아파트값은 39주 만에 하락했다.

2일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 동향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지난 달(8억3955만 원)보다 0.02% 하락한 8억3937만 원을 기록했다. 중위매매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중위 매매가격은 주택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는 가격을 말한다. 평균가격의 경우 고가주택 수가 많고 상승폭이 크면 높아지고, 저가주택이 많고 하락폭이 크면 내려간다. 그러나 중위가격은 모든 주택을 줄 세운 뒤 중앙에 위치한 가격만 따지는 만큼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위값이 뒷걸음질 친 곳은 강남·서초·광진구 등 3곳뿐이다. 다른 자치구들이 보합이나 상승세를 보이는데 비해 이들 지역이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전체 중위값을 끌어내렸다. 광진구는 9억7650만 원에서 9억7600만 원으로 내려

갔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각각 16억3000만 원, 16억5000만 원으로 전월보다 1000만 원(0.6%), 750만 원(0.5%)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정부가 지난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커진 경기 둔화 가능성과 까다로워진 자금 출처 증빙,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등으로 집값 약세가 뚜렷하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02% 하락했다.

KB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중위값 상승 폭도 둔화세다. 지난해 12월 2% 가까이 치솟은 뒤 올해 1월 처음으로 9%를 넘긴 중위값은 2월 0.27%, 3월 0.38% 오르는데 그쳤다. 3월 중위값은 9억1812만 원이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잠실 리센츠 '16억 매매'는 특수관계인 거래

최근 시세대로 19억에 팔려

지난달 시세보다 3억~4억 원 빠진 16억 원에 거래돼 화제가 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가 최근 19억 원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84.99㎡가 19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불과 6일 전(6일) 16억 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해 3억 원 이상이 오른 금액이다.

16억 원 거래 건과 관련해 일각에선 강남지역 집값 급락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6일 만에 기존 시세

와 비슷한 19억 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큰 폭의 강남 집값 하락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억 원 거래 건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잠실동 T공인 관계자는 "강남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호가가 몇 억 원씩 빠진 물건은 없다. 그나마 매물도 없어 대세 하락장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리센츠 아파트도 16억 원 거래 소식이 뉴스로 나오면서 문의가 있었지만 그간 시세보다 크게 하락한 매물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4월호 발매

COVER STORY 에이저리스를 정의하다

- PART1. Activity - 액티브 시니어, 스티드 액티비티
- PART2. Group - 젊은 김성 'Great Grey'가 모인다
- PART3. Elegance - 젊은 세대 넘어선 '역사' 완성
- PART4. Love - 여전히 매력적인 당신, 사랑 나누기 좋은 때
- PART5. Earning - 몸은 늙었지만 투자는 '청춘'
- PART6. Spending - 젊은 취향의 시니어, 소비 트렌드를 이끌다
- PART7. Study - 배움이 있는 한 젊음은 '현재진행형'



선라보가 만난 사랑



연애나 그 자리에서
공정과 감사를 말한다
'싱글링'소스 진행자 김예연



모두가 스승,
모든 것에 감사하며 실재
소설가 김홍신의 회담과 재밌음



해자를 통해 본 세상, 해자가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말한다
국내 최고 해자 조각 작가 최진호



더불어 숲
오솔길 하나 마음에
들어놓고 살자

고수열전 '나 홀로 항해로 망명대해를 노닐다'

그의 집은 바다에 있다.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다. 품과 정신의 집, 그걸 바다에 두고 산다. 다시 말해 바다에 올린 사람이다. 요트를 타고 대양을 누비는 모험에 심취해 멀리 남은 욕망이 없다. 이렇게 몰입이 깊어지자 즐거움이 커졌다. 즐거움이 커 풀림이 깊어졌을 수도 있었다. 여해든 단 한 번 주어진 생을 으쌰으쌰 즐거운 쪽으로 풀아가는 사람의 정경엔 노련한 인생 함해술이 비친다. 욕심과 냉만으로 반죽된 교유의 기쁨이 서려 있다.



Living & Home
집 안으로 스민
산뜻한 자연,
보태니컬
리빙 아이템



가치까지 꽃이 피고 초록빛 생기가 가득한 4월이다. 봄기운 머금은 자연에 퐁퐁 빠져들고 싶지만 마음처럼 나설 수 없는 요즘, 산뜻한 보태니컬 패턴이 가미된 리빙 아이템으로 아쉬움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

시니어 발상
올메이드 사생활을
싱그러운 봄날,
시금치의 화려한 변신

투자 고수와 놀자
최저산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수석팀장
은퇴 후에도
고정수입 올리는 법

생생 부동산 현장
황금노선 품은
황금도시 될까



서울시 송파구 정자동, 경기도 성남시 삼곡동, 하남시 학암동이 잇달은 위례신도시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그동안 경제발전 개발 호재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 신도시가 품은 호재와, 실제 투자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박사방 피해자 '잊혀질 권리' 돕는다

檢, 13명 이름·주민번호 변경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심리치료비·학자금 등 지원도

검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소위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지원과 피해 회복에 나선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 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실시한다.

검찰은 연락이 가능한 16명(미성년 7명)의 피해자 중 13명의 피해자가 개명 등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함에 따라 국선 전담변호사를 활용해 즉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신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단일 국선 전담변호

사로 지정했다. 이로써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수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 참여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개명절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위해 지난해 7월 개발된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영상물 삭제 절차를 진행한다.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의 영상 DNA를 추출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의 DNA 값을 비교해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URL(인터넷 주소)을 특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사이트 도메인주소와 동영상상을 제공해 삭제·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도 지급한다.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 한도에서 실비 지급이 가능하다. 생계비는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들이 기존 주거지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의 주거 지원도 가능하다.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미성년 피해자들의 경우 의사를 확인해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인계한다. 서울 2개소 등 현재 전국 14개의 스마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취업 지원비를 지원하고, 필요 시 방문 상담도 진행한다.

피해자 신변이 위협할 경우 검찰청이 마련한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위치확인장치를 교부해 위급 시 경찰에 비상호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이전이 가능하도록 이사비도 지원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발굴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봄나들이 아직은 안돼요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이 무려 1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서울시는 4, 5일과 12일에 여의도 한강공원 제1~4주차장을 폐쇄하고 진·출입구 6곳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진은 2일 통행이 차단돼 한산한 여의도 국회 벚꽃길(위)과 나들이객으로 북적이는 한강공원 모습. 고이관 기자 photoern@

총선 앞두고... 날 세우는 추미애·윤석열

秋 '검언유착' 의혹에 검찰 시사 尹, 라임사태 수사료 여론 압박

'4·15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편한 관계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져 추 장관이 검찰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기자를 통해 검찰의 위협을 받았다"는 혐치 감사의 주장이 나오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제기된 '검언유착' 의혹과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얼마 전 대검찰청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한 기자가 난데없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지금 대검에서 검찰 중이니 알아서 처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일련의 의혹들은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추 장관 등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윤 총장은 정치권 연루설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 수사를 직접 챙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여권 인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윤 총장은 2월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며 수사팀 보강을 지시한 바 있다.

반대로 추 장관은 검언유착과 관련해 정보를 흘렸다고 의심받는 윤 총장 측근 검사장에 대한 검찰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추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다"며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면 검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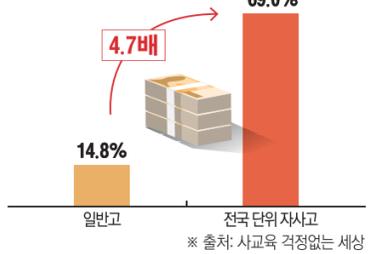
자사고 가려는 중3 70% "사교육비 월 100만원 이상"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가려는 중학생 10명 중 7명은 월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중학교 3학년생 3470명과 고등학교 2학년생 5112명, 교사 1461명 등 총 1만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쓰는 중3 학생 가운데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6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재학교 62.5%, 과학고 50.0%, 광역단위 자사고 37.7%, 외

중3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현황



고·국제고 37.7%, 일반고 14.8%로 나타났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일반고 희망 학생보다 2.3배 높았다.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가운데 주

당 1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3 학생 비율은 79.3%에 달했다. 영재학교 62.5%, 광역단위 자사고 60.4%, 과학고 55.0%, 외고·국제고 54.1% 순이다. 이에 반해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의 비율은 34.6%였다.

밤 10시 이후 심야 사교육 격차도 컸다. 심야 사교육을 받는다는 학생 중 일반고 진학 희망의 경우가 20.8%였고, 영재학교 희망자가 62.5%로 약 3배 높았다. 이어 과학고 50.0%, 전국단위 자사고 48.3%, 외고·국제고 36.1%, 광역단위 자사고 24.5% 순이다.

한편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2025년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DOUZONE
더존비즈온

www.wehago.com

대한민국 기업을 위하여! 원격근무 성공을 위하여! 재택근무 통합패키지 무상제공

- 본 서비스는 IC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기간: 2020. 06. 30까지)
-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의 소통과 협업에 특화된 12가지 서비스만 선별하여 업무 단절이나 보안 문제 없이 효율적인 원격근무 통합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WEHAGO 홈페이지(www.wehago.com)에서 신청하시고, 회원가입 후에는 바로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빈틈없는 재택근무를 위한 12가지 무상제공 서비스 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세종텔레콤 협력)까지 무료!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업무환경을 12가지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해줍니다.	내 PC 원격접속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의 서버 또는 PC에 접속하여 원격 화면을 보며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원격 PC의 자료를 관리합니다.	채팅&메신저(WE톡) 조직과 업무 단위로 그룹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와 파일을 공유하고, 쪽지, 화상회의, 투표, 일정 공유, 웹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용 메신저입니다.	화상회의 국내외 해외 어떤 지역이든 PC와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화상회의, 투표, 일정 공유, 웹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자서비스 거래처, 연락처와 연계되어 고객 및 거래처 그룹을 관리하고 대량 일괄발송 등 문자 기반의 다양한 마케팅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팩스 팩스기가 없어도 인터넷 팩스를 통해 수신되는 팩스 내용을 읽고 빠르게 확인하고,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메일(1G) 개인 메일은 물론 회사 메일까지 통합 관리하고, 간편하게 회사의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용 메일 서비스입니다.	전자결재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결재 양식을 제공하고, 모바일과 PC를 통해 비대면 보고가 가능하며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웹오피스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등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웹 기반 오피스입니다. 이제 설치해서 쓰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밀정보관리 조직도를 통한 직원검색, 수명주기 검색, 연락처의 통합관리 및 자동업데이트/공유, 다양한 타인의 회사계산서 등 기본정보 관리 기능이 제공됩니다.
	WE드라이브(10G) 회사 내 파일과 문서를 동료들과 쉽게 공유하고 검색하며, 웹 오피스를 통해 편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업용 파일저장소입니다.	일정관리 일정 초대와 공유캘린더를 통해 동료들과 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일정과 관련된 위치, 자료, 태그, 참석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협업합니다.	할일관리 해야 할 업무, 진행 중인 업무, 종료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자는 지시한 업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가지 언어를 지원합니다.



“정부·서울시 재난지원금 둘 다 받을 수 있다”

동작구, 코로나 극복에
추경 293억 긴급 편성

박원순 시장 “재원 마련 특단 조치... 최대 155만원”
잠실운동장에 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진료소 설치
조희연 교육감 “온라인 개학 8만명에 노트북 대여”

“재난긴급 생활비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 시민의 삶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결단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5인 가구의 경우 기준에 부합되면,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를 가구당 최대 50만 원(모바일 서울사랑 상품권은 55만 원),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분담비율 8대 2를 기준으로 약 35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2차 추경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 사업도 포기하는 등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라도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재난 사각지대의 시민들과 취약 계층들을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시장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상대적으로 해외 입국자들이 많은 서울시는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3일부터 서울 거주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전원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잠실종합운동장에 마련될 입국자 전용 워크스루(walkthrough) 선별진료소의 규모는 하루 평균 약 1000명의 진단 검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외 입국자들



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자치구청장들과 팔꿈치를 부딪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설치해야 한다.

박 시장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최대한 접촉을 피해야 하고 가족들도 철저히 접촉을 피해야 한다”며 “만약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이탈한 것이 적발되면 무관용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을 대비해 법정 저소득층 학생 5만여 명을 포함해 서울 학생 총 8만여 명에게 노트북 등 학습기기를 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학교 온라인 수업에 사용되는 인터넷 자료 등의 저작권 침해 우려에 관해 “출처 표기를 전제로 교육적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서울 동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 기금 75억 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293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중소상인 지원 123억 원 △민생안정 지원 79억 원 △일자리 발굴·지원 16억 원 △보육양육지원 76억 원 등의 규모다.

동작구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금액을 50억 원 증액해 92억 원으로 늘리고 한시적으로 융자 금리를 0%까지 인하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는 79억 원을 배정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는 4개월간 동작사랑 상품권 결제액의 5%를 최대 50만 원 내 경영보전금으로 지원한다. 김진희 기자 jh6945@

강남구, 음식점 1만여 곳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서울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관내 소형음식점 1만여 개소의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납부 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 쓰레기 무료 수거는 9월까지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새벽 3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동별 청소소대행 업체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관내 음식점은 한 달 평균 3만3000원, 6개월간 19만8000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설경진 기자 skj78@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숨통’... 서울시, 150억 지원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 마련
기업당 3억까지 0.5% 저금리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격감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총 15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최저 0.5%의 저금리로 긴급 수혈해 자금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다. 수행기관(사회적금융기관) 선정 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일 △코로나19 피해기업 특

별융자 지원 △재정지원 사업시 피해기업 우선 선발 △공공구매 조기 구매 등 판로 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전담상담 창구 신설·운영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 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기업 약 2000곳 중 179곳을 상대로 실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98% 이상 기업이 매출이 감소했고, 71%는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기업은 담보나 신용 등 경제적 기반이 일반기업보다 열악하고 피해 집중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특별 융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시 사회투자자금(790억 원 규모)을 활용해 총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0.5~1.5%(확진피해기업 0.5%, 직접피해기업 1.0%, 간접피해기업 1.5%)의 금리로 최대 3억 원(대환자금 포함)을 융자받을 수 있다.

기존 사회투자자금 융자 대비 금리는 대폭 낮아지고(3%→최저 0.5%) 융자 한도(최대 2억 원→3억 원)와 기간(5년→6년)은 확대됐다. 이미 사회투자자금 융자를 받은 기업도 최장 1년 특별 만기연장, 대환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특별 융자와 별개로 통상적으로

‘코로나19 특별융자’ 금리 및 융자조건

구분	확진 피해기업	직접 피해기업	간접 피해기업
융자한도	사회적경제기업 최대 3억 원 (채권잔액 기준)		
금리	0.5%	1.0%	1.5%
이자보전	2.5%	2.0%	1.5%
융자보전	2년거치 4년 상환조건		

※ 출처: 서울시

추진해온 재정지원사업도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1인당 최대 197만4000~250만 원)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1인당 최대 17만9000원) △사업개발비(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 최대 1억~5000만 원)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8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김진희 기자 jh6945@

박영사
신간도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박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헬스케어 대표이사
진) 김정문알로에 대표

“바른 걸음 걷자, 미워하지 말자... 시련 겪은 만큼 성숙”

소설가 김홍신

당대 최고 베스트셀러 '인간시장'의 작가,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한 국회의원, 그리고 봉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 김홍신의 삶은 여러 가지 명칭들로 지칭될 수 있다. 신작 장편소설 '적인종'의 집필, 수필집 출간을 준비 중인 그를 만나 독자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방송에서 자주 봐서 익숙한 김홍신 특유의 인자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외모는 여전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아는 바이지만, 그의 삶은 그런 인상과는 정반대였다.

“사람들은 저 김홍신 인생이 순조롭다고 여기실 테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삶이 순조롭다면 지구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신화와 역사가 될 수 없고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법이니까요.”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감동도 없다

그는 원래 의대를 가고자 했지만 떨어지면서 재수를 해야 했다. 그때 느낀 울분과 절망은 스스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재수를 해서 들어간 건국대학교 국문과. 할 일이 없다 하여 타과 학생들이 '국물과'라고 부르는 학과였다.

“그때 집안이 망해서 휴학까지 했죠. 그나마 당시에 가장 권위 있던 '현대문학'을 통해 데뷔했지만 날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종합대학 중 문인 숫자가 가장 적은 학교가 건국대였으니까요. 내 소설이 뛰어났다면야 나를 챙겨 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죠. 신춘문예에도 여러 번 떨어지니 '다 지들끼리 해먹는다' 싶었고... 물론 그게 아니지만 그렇게 핑계를 대야 내가 견디잖아요? 유명한 소설가들을 비판하면 비평력이 있다고 착각하던 때였죠.”

절망의 청춘을 지나 성숙해지다

그의 날 선 비판 대상에는 당대의 대표 소설가였던 최인호도 있었다. 세상에 불만 가득한 아인으로 살던 시절 끝에, 마침내 '인간시장'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순식간에 인기 작가가 된 그는 다른 사람 작품의 심사까지 맡게 됐다.

“그때 최인호 형과 같이 심하게 됐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판했었는데 같은 자리에 있려니까요. 그래서 '고백할 게 있습니다'라고 먼저 말했죠.”

최인호는 무슨 일이나고 물었다. 그리고 김홍신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다 털어냈다.

“얼마 전까지 선배님을 비판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나를 끌어안는 거예요. '내 앞에서 최인호를 비판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용서해 달라고 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더군요.”

자신을 반성하고 속죄하고자 한 김홍신이나 그런 모습을 보고 기탄없이 받아들이는 최인호나 둘 다 넉넉한 인물들이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식사 때 서로 돈을 내겠다고 육신각 신하다 결국 의형제를 맺는다.

“그때 인호 형이 한 얘기가 '지금 김홍신을 시샘하는 사람이 많다. 그걸 견뎌야 한다. 그리고 유명해질수록 바른 걸음으로 걸으며 세상과 너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였죠.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나도 그랬는걸 (웃음). 온갖 험박, 공갈에 편할 날이 없었어요.”

우리 어딘가에 있는 의인들을 도와줘야

그의 고난은 작가 생활을 거쳐 국회의원 시절로도 이어진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한 그는 2000년에는 한나라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나 그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 계속 주변과 싸워야 했다. 15대 국회에서는 '이틀만 근무하는 5월에 한 달치 세비를 받는 건 혈세 낭용이라며 세비 거부 운동을 벌여 동료 의원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정치권에서 배척받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자신의 진심이 닿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15·16대 연속 의정 활동 1위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증거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존경할 만한 어른을 몰아내고 영웅이 될 만한 사람들을 쳐냈어요.”

왜 그렇게 된 걸까? 그는 힘있는 자들의 횡포라고 진단했다. 상대를 존중해야 자기도 존중받을 수 있어 버린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시대를 이끄는 현자와 의인들은 시대가 만들어주고 옹호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구석구석에 계십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끝까지 진

“세상과 너무 타협하지 말라” 최인호 선배 충고 깊이 새겨 의정활동 때도 소신 지키기 위해 주변과 계속 맞섰죠
 혼신의 힘 쏟아부은 '대발해' 집필 3년 죽을 고비도 넘겨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대구 달려가는 의료진 보며 감명
 요즘은 모두가 나의 스승... 먼저 고개 숙이면 마음 편해져”



실을 향해 항해하는 사람. 우리 사회 곳곳에 계세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대구의사회회장의 호소문에 응답하는 의사들의 모습도 그런 것이었다고 봐요.”

굴곡 많은 시련을 어떻게 견뎌왔나

얘기가 자연스럽게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로 들어가게 될 시점이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끝나는게냐 미국과 유럽 등지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 거대한 역병의 파도에 쓸려 심신이 고달프고 막막하며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다. 김홍신은 누구보다도 그런 상태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지옥이라 할 수 있었던 시기는 소설 '대발해'를 쓸 때였다. 시작은 법륜 스님의 권고였다. “국회의원, 장관 열 번 하는 것보다 발해 역사를 알리는 게 할일 아닙니까”라는 말에 동의하며 시작된 '대발해' 집필은 2004년 말부터 3년간 두문불출하고 글만 쓰며 피폐하게 살게 만들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직후인 점도 그를 힘들게 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치아와 눈, 허리에 문제가 생겼죠. 불면증도 생겼어요. 자다가 단어가 떠오르면 메모해 놓고 잠을 자야 했으니까요. 요로결석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스카프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연이 있어요. 밖을 안 나가다 보니 햇볕 알레르기가 생겨서, 햇볕에 노출되면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더군요. 목은 치료가 안 돼서 스카프를 두르게 된 거죠. 지금도 손에 마비가 와요. 원고지 1만2000장을 썼으니까요. 교정만 7개월을 봤고요.”

소설을 쓰다 죽을 뻔한 경험을 치른 그는 고 김수환 추기경과도 깊은 친분이 있는 가톨릭 신자이지만 108배를 하며 세상, 민족, 평화, 북한 동포, 인도 불가촉천민을 위한 기도를 올린다. 자신이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할까마는, '나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와 같은 희망의 마음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품앗이 정신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구만 봐도 (알 수 있죠.) 모여드는 의사, 간호사, 봉사자들을 보세요.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이 달빛동맹으로 교류하는 걸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걸 보면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토록 남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안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 반드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DNA가 있잖아요.”

마음의 평화를 만드는 마음의 다짐

그는 잘 늙으려면 스스로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를 존중하려면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를 살아 있게 해주는 물, 공기, 풀, 햇빛을 사랑하고 그 존엄성도 인정해야 한다. 그가 어느 순간 자신의 삶과 세상을 위해 깨달은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고 말한다. 이는 김홍신 자신에게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 못할지언정 그에 대한 미움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내 전생의 어머니였다고 생각하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받아들이려 하면 내가 편해져요.”

그는 요즘 모두가 자신의 스승이라고 말한다. 집에 있는 진달래, 홍매화도 스승이다. 자신을 기쁘게 해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미운 사람이 생겼다고 쳐요. '에휴...' 하다가도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잊어버리지' 하며 다잡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할 때 '내가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반성합니다. 그러면 내가 편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제 스승인 거죠.”

물론 무조건 그의 말처럼 살 수는 없다. 심지어 그 자신조차도 계속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깨달음과 평화가 있음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체득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김홍신이란 이름을 부를 때 기뻐하면 좋겠어요. 아주 기쁘진 않더라도, 싫지 않고 밉지 않았으면 해요. 그러려고 하니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해내는 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음 한쪽이 아련히 아팠다. 그렇지만 그와 이야기하면서 지금 '장충전'이 절실한 이 시대에 김홍신이라는 문인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무릎을 탁 치며 늠름과 낯음이 명확히 깨달아지는 축복이 스며들었다.

글/김영순 기자 kys0701@

사진/홍상돈 프리랜서 photohong1@hanmail.net



현대약품 미녹솔S로
뽕뽕하게~



전문 탈모 클리닉을 집에서 간편하게! 현대약품 미녹솔S 3종세트

현대약품의 국민탈모약 마이녹솔에 감탄한
고객님들의 요청으로 탄생했습니다.
탈모증상을 완화하고 모발을 케어하는 현대약품 미녹솔S!
집에서도 쉽게 간편하게 탈모관리하세요.

미녹솔S 스케일러 (두피 스케일링 및 각질케어)

영양성분과 자연유래 추출물로 두피를 상쾌하고 청결하게!
성분: 맥주효모추출물, 쿠파베타이드, 호두껍질, 마유오일, 베타민, 유칼립투스잎추출물

미녹솔S 샴푸 (두피영양 및 모발케어 / 탈모증상완화 기능성화장품)

탈모증상완화에 도움을 주어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기능성 성분 4종: 비오틴, 텍스판테놀, 나이아신아마이드, 징크피리치온액
성분: 콜라겐, 비타민C, 유칼립투스잎추출물, 알로에추출물, 맥주효모추출물, 여성호추출물, 녹차잎추출물, 자스엽추출물, 로즈마리추출물, 쿠파베타이드

스칼프 헤어토닉 (두피 및 모발영양)

집중 영양 공급으로 씻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성분: 맥주효모추출물, 유칼립투스잎추출물, 쿠파베타이드, 꽃잎추출물, 맥아추출물, 연꽃



미녹솔S 헤어탈모클리닉 (더블세트 합인)
●1SET : 60,000원 ●2SET : 120,000원 ▶108,000원

“대세는 ‘소프트콘’...매달 신상품 1개 이상 출시”

편의점 디저트 잇단 히트...이혁주 세븐일레븐 MD

‘매일우유맛소프트콘’·‘빵빠레딸기’ SNS 입소문에 수출까지 하루 수십 가지 상품 맛보고 데이트도 소프트콘 전문점 순례로

“편의점에서 디저트를 사먹는 ‘편디족’이 갈수록 늘고 있다. 클래식베이션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라인업을 꾸려 세븐일레븐만의 차별화한 경쟁력을 갖추겠다.”

식사 후 커피에 이어 아이스크림도 편의점의 디저트 대세 상품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특히 직장인들이 편의점 디저트를 즐겨 찾으면서 지난해 세븐일레븐의 아이스크림 매출은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이 중 콘류는 38.2% 오르며 전체 신장률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콘류 매출 비중도 2017년 28.7%에서 지난해 36.6%로 치솟았고, 작년 세븐일레븐의 아이스크림 매출 베스트 20에는 콘 제품이 절반을 차지, 2017년보다 3개 더 늘었다.

세븐일레븐을 ‘소프트콘’ 맛집으로 성공적으로 이끈 주인공은 2014년 입사 후 이

듬해부터 음료주류팀을 이끌고 있는 이혁주(사진) MD다. 그는 “예전에는 대중성 있고 저렴한 상품들이 주로 소비됐지만, 요즘에는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비싸더라도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콘으로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우유맛소프트콘’과 ‘빵빠레딸기’ 등 세븐일레븐을 대표하는 소프트콘 모두가 MD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매일우유맛소프트콘’은 2018년 12월 비수기인 겨울철에 내놔도 롱칭 직후부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퍼져 지난해 세븐일레븐의 아이스크림 매출 전체 1위에 등극했다. 이 MD는 “매일우유의 원유를 사용해 우유 본연의 진한 맛을 살린 점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빵빠레딸기’는 롯데푸드의 대표작 ‘빵빠레’의 딸기맛 상품으로 지난해 봄꽃 시즌과 딸기철에 핑크 콘셉트의 SNS 인증샷이 유행하면서 일명 ‘인싸템’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물론, 베트남과 필리핀, 러시아 등에 수출도 하고 있다.

그는 “소프트콘 개발을 위해 하루에 수십 가지 아이스크림 상품을 맛봐야 하다 보니 데이트할 때도 소프트콘 전문점을 찾아다니는 게 일상이 됐을 정도”라고 회상했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아이스크림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디저트 소프트콘’ 구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 초 내놓은 ‘세븐셀렉트 칸타타소프트콘’도 이 MD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이 제품은 국내 RTD커피 점유율 1위인 ‘칸타타’ 브랜드와 협력한 상품으로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칸타타 커피 시럽을 섞은 아포가토 맛이 특징이다.

이 MD는 “칸타타소프트콘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도 유명 브랜드와 클래식한 소프트콘을 출시하는 등 매월 이색 소프트콘을 한 개 이상 출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프리미엄 디저트 아이스크림 시장을 선도하는 차별화 상품들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농림축산식품부 ‘4월 A-벤처스’ 맞춤형 메디푸드 업체 ‘잇마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A-벤처스’로 맞춤형 메디푸드 업체 ㈜잇마플(공동대표 김술기·김현지·사진 왼쪽부터)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A-벤처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하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이다.

잇마플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건강 상태를 수집·분석한 뒤 개인별 맞춤 식사와 영양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특히 만성콩팥병 환자를 위한 식단과 정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업 2년 만에 매출액 5억7000만 원을 달성하고 신규 일자리 13명을 창출했다. 잇마플은 세계 콩팥의 날(3월 둘째 주 목요일)을 맞아 ‘저염식 실천 캠페인’을 벌이고, 소아 콩팥병 환자를 위한 기부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웬블던 테니스’ 코로나19로 2차대전 후 첫 취소

아멜리 모레스모 “백신 없인 테니스도 없다”

〈2006년 여자단식 우승자〉

‘황제’ 페더러 “엄청난 충격”

US오픈, 호주오픈, 프랑스오픈과 함께 세계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웬블던 테니스 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됐다. 웬블던 대회가 취소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75년 만에 처음이다.

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잉글랜드 테니스클럽(AELTC)은 이날 성명에서 웬블던 대회를 주관하는 올잉글랜드 테니스클럽 이사회와 대회 운영위원회가 6월 말 영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133회 웬블던 대회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134회 대회는 내년 6월 28일~7월 11일에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를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환불 조치하고, 2021년 대회 같은 날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회 취소로 선수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웬블던 대회에서 20차례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거머쥔 ‘테니스의 황제’ 로저



페더러(오른쪽 사진)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2006년 여자단식 우승자였던 아멜리 모레스모(왼쪽)도 “2020년 테니스 시즌은 더는 열리지 못할 것 같다”고 슬퍼했다. 이어 “백신 없이는 테니스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최 측의 결정을 지지했다.

1877년 창설된 웬블던 대회는 제1,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1915~1918년, 1940~1945년 총 6년간 열리지 않았다. 1946년 종전 후에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개최됐다. 웬블던 대회의 취소로 올해 프랑스오픈과 US오픈의 정상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1월에 열린 호주오픈은 정상적으로 끝났지만, 5월로 예정됐던 프랑스오픈은 9월로 연기됐다. US오픈은 8월 31일에 개막 예정이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산하 공기업 임직원 ‘착한 마스크 캠페인’ 동참

요양병원에 4960개 전달

서울시 공무원,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이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진과 취약계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양보하는 ‘착한 마스크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일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들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들은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각 청사에서 먼 마스크와 휴대용 손 소독제를 받고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하는 ‘착한 마스크 캠페인’에 참여했다. 열흘간 많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기부에 참여했으며, 직원들이 기부한 보건용 마스크 4960개는 서울시 소재 124곳의 요양병원에 직접 전달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아우디폭스바겐,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 ‘기프트 박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그룹총괄사장 르네 코네베아그·사진 가운데)는 2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공동생활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생활센터는 빈곤과 방임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비영리단체 ‘한국사회투자’와 함께 전국 공동생활센터 475개소 2500여 명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6000여 그루의 반려나무와 손 소독제를 담은



‘기프트 박스’를 전달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총 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이번 사회공헌 활동으로 소외된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해소와 실내 공기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고한석 서울시장 비서실장 내정

박원순 서울시장의 새 비서실장으로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고한석 신임 비서실장은 서울시 빅데이터 전문가로 손꼽힌다. 서울대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정보기술(IT) 정책으로 학위를 받은 고 신임 실장은 삼성네트웍스에서 글로벌 사업을 담당했다. 이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 정책기획 연구원과 정책분석국장,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5월부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고 신임 실장은 7월 취임할 예정이며, 이날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관련 인사위원회는 6일 열릴 예정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한국레노버 김윤호 대표 선임

한국레노버는 신임 대표로 김윤호 씨를 선임한다고 2일 밝혔다.

1996년 한국테라레이타에서 경력을 시작한 김 대표는 이후 한국 텔레콤놀로지스와 한국HP에서 대기업 어카운트 부문을 이끌다. 특히 2010년부터 한국오리클에서 근무하며 엔지니어드 시스템 및 전략 솔루션의 지역 영업 총괄을 역임했다. 단국대학교 공업화학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버나디노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이대여성암병원장에 문병인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문병인 외과 교수를 이대여성암병원장인임병원에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2022년 1월 31일까지다.

문병인 신임 이대여성암병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6년부터 이화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복지기관 타이어 교체 지원사업 한국타이어, 29일까지 신청접수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의 사회공헌재단인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이 이동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지원하는 ‘2020 타이어나눔 지원사업’의 상반기 공모를 29일까지 진행한다.

‘타이어나눔 지원사업’은 한국타이어의 핵심 비즈니스 특성인 ‘이동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시행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2만1000개의 타이어를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지원했다.

지원 기관 공모는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진행하고, 올해에는 총 700여 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관 적합성 심사와 타이어 마모 정도에 따른 교체 필요성 평가를 거쳐 약 350여 개 기관을 선정해 내달 15일 발표할 예정이고, 6월 13일까지 각 기관이 신청한 티스테이션에서 타이어 교체와 경정비 서비스가 제공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 김세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문현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실·본부장 보직 △기획조정실장 윤두섭 △연구기획본부장 조병덕 △대의협력본부장 한운수 △경영지원실장 연대흠 △평가연구실장 김병철 △성과정보실장 이수한 △행정혁신실장 한영민 △감사실장 권정재 ◇부장 보직 △전략기획부장 황지은 △비전실행부장 조희재 △연구기획부장 이진형 △협동연구부장 황용희 △국제협력부장 노용식 △플랫폼지원부장 육현민 △경영지원부장 이지성 △예산부장 유영민 △평가관리부장 최재영 △교육연수부장 조원욱 △정보화부장 조장호 △인사혁신부장 최상훈 △총무재무부장 이길영 △검사역 이병준 정호연 ◇전문위원 승진 △예산부 왕지훈 △국무조정실 파견 이재규

◆포스코SPS 〈신규선임〉 △포스코

SPS 대표이사 김학용 사장 △STS사업실장 정해익 전무 △TMC사업실장 김동호 전무 △후판공사사업실장 임동인 전무 △경영기획실장 홍승표 상무

◆이디야커피 △전략기획본부장 최신대 △드림팩토리본부장 하태환

◆한겨레신문 △국제부 국제뉴스팀장 이정애 △디자인부 인포그래픽팀장 송권재 △디지털부 디지털뉴스팀장 김미영 △컨텐츠기획팀장 박현철 △사진부 디지털사진팀장 김태형 △사진기획팀장 이정아 △사진뉴스팀장 김정호 △사회부 법조팀장 김태규 △사건팀장 이재훈 △사회정책부 기후변화팀장 박기용 △사회정책팀장 조혜정 △전국부 전국팀장 오승훈 △정치부 정치팀장 이세영 △통일외교팀장 박병수 △토요판부 토요판팀장 이문영 △퍼블리싱부 CTS2팀장 박민애 △CTS4팀장 김지야 △디지털출판1팀장 김정숙 △편집부 편집1팀장 천복귀 △편집2팀장 이정훈 △편집3팀장 김원일(이상 편집국)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지원팀장 강창석 △영상미디어국 방송

제작부 시사제작팀장 김도성 △자회사경영혁신TF팀장 신철

◆스포츠한국 △부사장 이종석

부음

▲이용환 씨 별세, 이영석(한국전력기술 부장)·재만(한화투자증권 기획관리실 상무)·정숙(상갈중학교 교사) 씨 부친상, 박선규(폴리건건축설계사무소 소장) 씨 장인상 = 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4일, 02-2072-2028

▲박승남 씨 별세, 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씨 부인상, 정다인·다은 씨 모친상 = 2일, 세종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2층 7호실, 발인 4일, 044-863-0761

▲이종태 씨 별세, 이승호(상지대 대학원장)·승철(강원대 교수)·승희·승은·승미 씨 부친상, 박일원(LA플러스스타식품 대표)·유인한(현대M금융 대표)·윤정태(프러스타포린 대표) 씨 장인상 = 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 02-3010-2237

김수원의 복지플랫폼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긴급재난지원, 디테일이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현금 급여를,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는 차별화된 접근을 하도록 역할 분담 원칙이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

3월 30일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 중인 전시(戰時)이자 대공황에 가까운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이기도, '긴급재난지원'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입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첫째,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에 대한 긴급 지원의 목적과, 일상이 희생된 중산층을 위로하려는 목적, 거기에 상위계층은 제외하려는 목적을 담아 한번에 지급하려는 방식이 여러 가지 무리수를 낳고 있다.

수 있는 중산층에게는 시간을 두고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한 후에 2단계로 지급하면 된다. 향후 재난의 추이에 따라 국민의 70%라는 대상 기준에 대해 유연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에 지자체의 재난지원을 지원하겠다고 하고서, 뒤늦게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하면서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상당수 지자체는 자체 계획했던 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혼란에 빠졌다.

나19의 경제적 파급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다 나서서 누구에게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정 과정조차 없이, 아주 유사한 현금지급 방식으로 한 번의 지원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지금은 가계도 기업도 힘들다. 정부의 대응이 단기적 시야에서 국민 개인에게 소득 지원과 위로 차원으로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기업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필요하다.

수 없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실행하거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에 놓여 있다. 선부른 시장 개입은 자칫 왜곡을 낳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긴급재난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에는 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 뿐만 아니라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 방역 선진국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나라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해도, 전 세계적인 전시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한 경제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 겪는 경제적 곤란이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종료되어 바로 회복될 수 있느냐 아니면 장기적 경제침체의 늪에 빠지는냐의 기로에서 있는 현실 앞에서, 어떤 이유든 지금은 방만하게 비효율적인 정책 실행을 할 때가 아니다.

이재형의 통제로 경제 읽기
경제학 박사·전 통계개발원장

코로나19 감염자 수 정말 얼마나 될까

이투데이, 말투데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가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미 팬데믹을 선언했으며, 세계 많은 나라가 출입국 제한을 통해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100만 명, 2009년의 신종플루는 약 2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이들 사태와 비교한다면 아직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같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지만 지금 감염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매일매일 세계의 확진자 수가 집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대비 피검자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현실에서 실제 감염자 수는 얼마나 될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다.

2일 기준 세계 확진자 수는 9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미국 존스홉킨스 대학)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세계 인구 약 76억 명의 0.01%를 조금 웃도는 숫자로 1만 명 중 1명꼴이다.

일반적으로 사회현상을 숫자로 파악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겠지만, 전염병이 갖는 특성상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은 나라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해외로부터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자에 대해서는 거의 전수 검사를 하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즘 하루 입국자가 7000~8000명이며, 그 가운데 확진자 수는 20~50명이라고 한다. 이를 간단히 계산해보면 전체 입국자 대비 확진자 비율은 0.3~0.7%로, 인구 1만 명당 30~70명이다.

☆ 말론 브란도 명언
"모든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배우이다. 하지만 나는 연기를 하지 않는다. 내가 캐릭터가 되고 그 자체다."
미국 영화배우.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주인공을 맡아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 고사성어 / 동심동덕(同心同德)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상서(尙書) 태사편(泰誓篇)에 나온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은 포악한 은(殷商)나라 주왕(紂王)을 정벌하려고 도읍인 조가(朝歌)로 진격하였다.

'2l 생수 36병 무료배송'
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배송 지옥'이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다. 모 유통업체가 내놓은 PB 생수 2l 36병을 한꺼번에 배달해준다는 내용이다.

기자수첩
박미선 유통바이오부/only@



쿠팡의 질주에 '사람'이 안 보인다

던 사회 구석구석 취약한 부분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생활의 편리함을 안겨준 쿠팡의 배송이 그중 하나다.

만, 정작 배송을 책임지는 '쿠팡맨' 퇴사율은 75%에 달할 만큼 처우에 소홀했다.

입 쿠팡맨이 새벽 근무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건 '예견된 일'이었다는 게 쿠팡맨 노조 측 주장이다.

쿠팡맨 사망 사고 이후 커뮤니티에선 생수, 쌀 등 중량이 무거운 물품을 대량으로 주문하지 말라며 소비자가 서로를 단속한다.

☆ 시사상식 / 잡출핑(jobhopping)족
고액 연봉이나 경력 개발을 위해 직장을 2~3년 단위로 자주 옮기는 사람.

☆ 유머 / 여자의 자존심
성경 수업시간. 탄짚하던 여대생에게 교수가 '학생, 최초의 남자가 누구지?'라고 물었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Includes contact info and address.

그 여학생은 분노에 찬 얼굴로 딱 잘라 대답했다. "그건 제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슈&인물

더 꼬여가는 키코 배상

조봉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

“감사원에 산업은행 감사 청구할 것”

“신뢰를 잃은 순간, 고객도 떠납니다.”
조봉구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장이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안 수락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시중은행들을 향해 이같이 일갈했다. 신한, 하나, 대구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미 수락 여부 통보 기한을 3차례 연기해 이달 6일까지 최종 답변을 내야 한다. 조봉구 위원장은 이번에도 시중은행이 연기 신청을 하거나 불수락 결정을 내릴 경우, 더 이상 고객들은 은행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를 입으면 구제해 준다’는 신뢰를 주는 은행만이 경쟁 체제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 믿는 그의 생각이다.



조봉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코막중공업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키코 피해기업 배상에 대한 은행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피해를 입으면 구제해 준다”는 신뢰를 주는 은행만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키코 상품으로 큰 손실을 입고 회사 문을 닫아야 했던 조 위원장은 과거 경험을 살려 도산한 기업들을 돕는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까지 맡고 있다. 혼자서는 싸울 수 없기에 여럿이 뭉쳐서 만든 것이 공대위라는 그의 말처럼, 2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시중은행을 상대로 작지만 강한 목소리를 내며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산업은행이 배상안 불수락 결정을 내렸다. 시중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결정을 따라 시중은행들 역시 불수락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이 6일까지 결정 시한을 미룬 것도 산업은행의 수락 여부와 배상안 거부 논리를 참고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국책은행이 제일 먼저 거부 의견을 밝힌 것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산업은행의 역할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산업은행은 말 그대로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은행 논리에 따라서 수익 추구에만 몰두했다. 수수료를 챙겨 수익을 남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둔 것은 산업은행의 본분을 잃은 행위다. 특히, 키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금융연구원 원장으로 있었는데, 당시 피해기업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이번에도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배상안 거부를 결정한 산업은행의 논리에 대한 생각은

“최근 이투데이가 보도한 기사를 보고 산업은행의 논리를 알게 됐다. 기사를 보면 산업은행의 법률 검토 보고서에는 ‘거래 기업인 일성의 파생거래 손실은 외화 유입액 이익으로 상쇄돼, 실제 발생한 손실은 없다’라고 언급돼 있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 2011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1심 당시 법원에 제출된 ‘피고 산업은행과의 키코 계약 문서’에 피해기업의 손실이 총 120억 원이라고 명시돼 있고, 산업은행도 해당 문서를 갖고 있다. 이투데이 기사를 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은행의 논리가 명백한 거짓임을 알렸다.”

“이투데이 보도 이후 산업은행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이전부터 면담 요청을 했을 때는 이런 저런 이유로 날짜를 확정해 줄 수 없다고 면담을 회피했다. 그러다가 이투데이 기사가 나온 당일 오후 산업은행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면담 날짜를 2일로 정했다. 보도가 나가니까 공대위의 요구에 응답을 보낸 것이다. 이번 면담에서 법률 보고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찾을 것이고, 보고서에 나온 사실 관계에 대해 조목조

국책은행인 産銀이 가장 먼저 금감원 배상안 ‘불수락’ 결정 실제 손실 없다? 명백한 거짓 ‘산업 보호’ 본분도 망각한 것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 위반 피해고객 배상 외면이 ‘배임’ 시중은행 ‘불수락’ 결정하면 참여연대와 감사 청구 계획

금융 소비자 개인은 약한 존재 뭉쳐야 산다는 것 깨달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결정을 따라 시중은행들 역시 불수락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이 6일까지 결정 시한을 미룬 것도 산업은행의 수락 여부와 배상안 거부 논리를 참고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국책은행이 제일 먼저 거부 의견을 밝힌 것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산업은행의 역할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산업은행은 말 그대로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은행 논리에 따라서 수익 추구에만 몰두했다. 수수료를 챙겨 수익을 남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둔 것은 산업은행의 본분을 잃은 행위다. 특히, 키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금융연구원 원장으로 있었는데, 당시 피해기업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이번에도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배상안 거부를 결정한 산업은행의 논리에 대한 생각은

“최근 이투데이가 보도한 기사를 보고 산업은행의 논리를 알게 됐다. 기사를 보면 산업은행의 법률 검토 보고서에는 ‘거래 기업인 일성의 파생거래 손실은 외화 유입액 이익으로 상쇄돼, 실제 발생한 손실은 없다’라고 언급돼 있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 2011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1심 당시 법원에 제출된 ‘피고 산업은행과의 키코 계약 문서’에 피해기업의 손실이 총 120억 원이라고 명시돼 있고, 산업은행도 해당 문서를 갖고 있다. 이투데이 기사를 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은행의 논리가 명백한 거짓임을 알렸다.”

“이투데이 보도 이후 산업은행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이전부터 면담 요청을 했을 때는 이런 저런 이유로 날짜를 확정해 줄 수 없다고 면담을 회피했다. 그러다가 이투데이 기사가 나온 당일 오후 산업은행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면담 날짜를 2일로 정했다. 보도가 나가니까 공대위의 요구에 응답을 보낸 것이다. 이번 면담에서 법률 보고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찾을 것이고, 보고서에 나온 사실 관계에 대해 조목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결정을 따라 시중은행들 역시 불수락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이 6일까지 결정 시한을 미룬 것도 산업은행의 수락 여부와 배상안 거부 논리를 참고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국책은행이 제일 먼저 거부 의견을 밝힌 것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산업은행의 역할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산업은행은 말 그대로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은행 논리에 따라서 수익 추구에만 몰두했다. 수수료를 챙겨 수익을 남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둔 것은 산업은행의 본분을 잃은 행위다. 특히, 키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금융연구원 원장으로 있었는데, 당시 피해기업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이번에도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배상안 거부를 결정한 산업은행의 논리에 대한 생각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결정을 따라 시중은행들 역시 불수락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이 6일까지 결정 시한을 미룬 것도 산업은행의 수락 여부와 배상안 거부 논리를 참고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국책은행이 제일 먼저 거부 의견을 밝힌 것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산업은행의 역할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산업은행은 말 그대로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은행 논리에 따라서 수익 추구에만 몰두했다. 수수료를 챙겨 수익을 남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둔 것은 산업은행의 본분을 잃은 행위다. 특히, 키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금융연구원 원장으로 있었는데, 당시 피해기업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이번에도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배상안 거부를 결정한 산업은행의 논리에 대한 생각은

“최근 이투데이가 보도한 기사를 보고 산업은행의 논리를 알게 됐다. 기사를 보면 산업은행의 법률 검토 보고서에는 ‘거래 기업인 일성의 파생거래 손실은 외화 유입액 이익으로 상쇄돼, 실제 발생한 손실은 없다’라고 언급돼 있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 2011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1심 당시 법원에 제출된 ‘피고 산업은행과의 키코 계약 문서’에 피해기업의 손실이 총 120억 원이라고 명시돼 있고, 산업은행도 해당 문서를 갖고 있다. 이투데이 기사를 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은행의 논리가 명백한 거짓임을 알렸다.”

“이투데이 보도 이후 산업은행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이전부터 면담 요청을 했을 때는 이런 저런 이유로 날짜를 확정해 줄 수 없다고 면담을 회피했다. 그러다가 이투데이 기사가 나온 당일 오후 산업은행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면담 날짜를 2일로 정했다. 보도가 나가니까 공대위의 요구에 응답을 보낸 것이다. 이번 면담에서 법률 보고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찾을 것이고, 보고서에 나온 사실 관계에 대해 조목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결정을 따라 시중은행들 역시 불수락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이 6일까지 결정 시한을 미룬 것도 산업은행의 수락 여부와 배상안 거부 논리를 참고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국책은행이 제일 먼저 거부 의견을 밝힌 것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산업은행의 역할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산업은행은 말 그대로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은행 논리에 따라서 수익 추구에만 몰두했다. 수수료를 챙겨 수익을 남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둔 것은 산업은행의 본분을 잃은 행위다. 특히, 키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금융연구원 원장으로 있었는데, 당시 피해기업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이번에도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배상안 거부를 결정한 산업은행의 논리에 대한 생각은

“최근 이투데이가 보도한 기사를 보고 산업은행의 논리를 알게 됐다. 기사를 보면 산업은행의 법률 검토 보고서에는 ‘거래 기업인 일성의 파생거래 손실은 외화 유입액 이익으로 상쇄돼, 실제 발생한 손실은 없다’라고 언급돼 있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 2011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1심 당시 법원에 제출된 ‘피고 산업은행과의 키코 계약 문서’에 피해기업의 손실이 총 120억 원이라고 명시돼 있고, 산업은행도 해당 문서를 갖고 있다. 이투데이 기사를 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은행의 논리가 명백한 거짓임을 알렸다.”

“이투데이 보도 이후 산업은행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이전부터 면담 요청을 했을 때는 이런 저런 이유로 날짜를 확정해 줄 수 없다고 면담을 회피했다. 그러다가 이투데이 기사가 나온 당일 오후 산업은행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면담 날짜를 2일로 정했다. 보도가 나가니까 공대위의 요구에 응답을 보낸 것이다. 이번 면담에서 법률 보고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찾을 것이고, 보고서에 나온 사실 관계에 대해 조목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결정을 따라 시중은행들 역시 불수락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이 6일까지 결정 시한을 미룬 것도 산업은행의 수락 여부와 배상안 거부 논리를 참고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국책은행이 제일 먼저 거부 의견을 밝힌 것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사설

기업 돈가뭇에 대출 급증, 도산 공포 커진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은행 대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 3월 한 달 동안 KB국민·신한·우리·하나·NH 농협 등 5대 은행의 기업대출이 13조 456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3조6702억 원)의 4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대기업의 대출이 8조949억 원이나 늘어나, 2월 증가분(7883억 원)의 10배를 웃돌았다. 이례적이다. 대기업들은 통상 은행보다 금리비용이 낮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러나 채권시장 경색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만기 물량이 급증하자,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으로 몰려들고 있다. 은행에 설정해 둔 한도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량기업은 별로 사용하지 않던 ‘마이너스 통장’에서 미리 돈을 빼쓰는 방식이다.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 확보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회사채 50조8727억 원 가운데 당장 4월 만기인 것만 6조5495억 원이다. 1991년 이후 4월 물량으로 가장 많다. 이를 갚거나 새로운 회사채의 차환(借換)발행으로 만기를 미뤄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작년에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부진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매출실적과 순이익이 크게 악화되면서 현금흐름도 급속히 나빠졌다. 매출 기준 상위 30개 상장사(금융·공기업 제외)들이 2019년 영업활동으로 벌

어들은 돈이 2018년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현금동원 능력이 취약해졌다는 얘기다. 대기업들까지 돈가뭇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 더 말할 것도 없다.

기업들의 재무사정이 나빠지면서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다. 잇따른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예고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금난 기업이 속출하고, 이달 대기업 가운데 쓰러지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4월 위기설’도 나온다.

대기업 어느 한 곳이라도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맞는다면 파장은 심각하다. 전·후방 관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과 대량 실업, 경제 위기의 기폭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 긴급자금을 풀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중심의 대출·보증과 경영자금 지원, 회사채 등의 매입자금 공급 등을 위한 비상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금 기업들의 경영난과 돈가뭇은 규모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는다. 상황은 계속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지켜야 할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는 사태만큼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지원자금 집행이 최대한 빨리,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 적신호가 켜진 대기업 자금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봐야 한다.

영화로 보는 세상

전 세계를 뒤흔든 한 표 ‘스윙보트’

이렇게 선거 분위기가 뜨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코로나 사태로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다 보니 어느새 총선이 불과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법도 복잡하고 누가 출마하는지도 갑갑하다. 최선보다 차선, 차악이라고 얘기하며 꼭 투표를 하라고 강변해 왔지만 이번에는 어째 그마저도 시들하다. 모두 최악 같으니 말이다. 그래도 이 영화를 보면 맘이 좀 바뀔지 모른다. 영화 ‘스윙보트(Swing Vote)’ 얘기다.

미국의 작은 도시에 사는 버드 존슨(케빈 코스트너)은 하릴없이 인생을 즐기는 게으른 중년의 싱글 대디다. 그에게 유일한 가족인, 철이 일찍 든 열두 살 딸



몰리(메들린 케틀)가 이런 아빠를 대신하여 가정을 돌본다. 평온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운명 같은 그날이 다가온다.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일. 똑똑한 딸이 어리숙한 아버지 대신 투표를 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대통령 선거 시스템이 오작동된다. 결국, 미국의 선거법에 따라 버드는 10일 안에 재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버드의 한 표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던 공화당 소속 현 대통령과 차기 대권을 노리는 민주당 대선 후보 중 누가 차기 대

통령이 될지를 결정하게 된다. 전 세계의 마스크이 버드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양측 대선 캠프는 오직 버드만을 위한 대선 캠페인을 펼치면서, 버드가 사는 작은 마을로 모든 미국인의 시선이 집중된다.

버드는 딸의 간곡한 요청으로 공약 등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정치적 무관심에서 깨어 있는 시민으로 탈바꿈하는 장면

이 꽤나 설득력이 있다. 거기에 이런 버드의 대국민 연설은 자못 감동적이다. “저는 부끄러운 아버지이자 국민이었습니다. 봉사도 희생도 할 줄 몰랐고, 가장 큰 의무라 해봐도 관심 갖고 투표에 참여하라는 것뿐이었죠. 미국에 진짜 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저일 겁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황당하지 않아서 좋았다. 어쨌든 우리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표는 던지고 눌러 가자.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